더불어 으뜸 관악구

2022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2022. 12

제 출 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귀중

본 보고서를 '2022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의
최종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2월

제출 기관 : (주)휴먼앤데이터

※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여론조사 수행업체의 견해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장 조사 개요 ····· **1**

1. 조사 목적 ····· 1
2. 조사 설계 ····· 1
3. 조사 내용 ····· 2
4. 응답자 특성 ····· 3
5. 자료 처리 과정 및 분석 방법 ····· 4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 **5**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 **15**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악S밸리)의 지역경제 기여도 ····· 17
2.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 ····· 19
3. 수해 재난대응 만족도 ····· 21
4. 강감찬 브랜드 파워 인지도 ····· 23
5.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구현 필요성 ····· 25
6.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 27
7. 1인 가구를 위한 중점 추진 정책 ····· 29
8.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적절성 ····· 31
9. 청년특별시 관악 중점 추진 정책 ····· 33
10. 반려동물 복지 위한 중점 추진 정책 ····· 35
11.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기간 ····· 37

12. 쓰레기 배출 시간 인지도 ····· 39
13. 쓰레기 배출 장소 인지도 ····· 41
14.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참여도 ····· 43
15. 민선 8기 역점 분야 ····· 45
16. 민선 8기 구정 만족도 ····· 47
17. 관악구 거주 이유 ····· 49
18. 관악구 구정 소식 인지 경로 ····· 52

제4장 관악구 청소년정책 FGI 조사 결과 ····· 55

1. 청소년정책 FGI 조사 개요 ····· 57
2. 청소년 좌담회 결과 ····· 58
   1)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장래 희망 준비 정도 ····· 58
   2) 관악구 청소년정책 평가 ····· 59
   3) 관악구에서 지원하면 참여할 것 같은 프로그램 ····· 61
   4) 관악구에 건의하는 청소년정책 홍보 방안 ····· 62
   5) 관악구 꿈나래프로젝트 기대감 ····· 63
3. 청소년지원기관 실무자 좌담회 결과 ····· 65
   1) 관악구 청소년정책 지원부서 통합 필요 ····· 65
   2) 관악구 청소년 지원 기관들 간의 접근 편의성 ····· 65
   3) 방과 후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 형평성 ····· 66

별첨. 조사 설문지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 설계
3. 조사 내용
4. 응답자 특성
5. 자료처리 과정 및 분석 방법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022년은 관악구 민선8기 1년차로 구정 방향성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주민 행정수요를 발굴하고자 함

특히 청소년 정책인 꿈나래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관악구 거주 청소년의 생각과 인식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책 추진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 내년도 정책 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가. 설문조사 설계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온라인 조사
모집단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본수	1,00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조사기간	2022년 12월 2일 (금)~12월 13일 (화)

나. FGI 설계

조사방법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심층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1]
모집단	관악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표본수	총 2그룹(그룹당 7~8명)+정책실무자 1그룹
조사기간	2022년 12월 3일, 7일 (2일간) [1그룹] 일시 : 2022년 12월 3일 13시 장소 : 싱글벙글교육센터 [2그룹] 일시 : 2022년 12월 7일 16시 장소 : 모임공간 토즈 [3그룹] 일시 : 2022년 12월 7일 18시 장소 : 중식당

1) 표적집단면접법(FGI : Focus Group Interview) : 면접자를 일정한 자격 기준에 따라 추천 등의 방식으로 7~10명 정도 선발하여, 한 장소에 모이게 한 후 면접자의 진행 아래 조사 목적과 관련된 토론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조사기법

3. 조사 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일반적 사항	▪ 성별, 연령, 지역, 직업, 거주기간
설문조사 (전화면접조사+ 온라인조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악S밸리)의 지역경제 기여도 ▪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 ▪ 수해 재난대응 만족도 ▪ 강감찬 브랜드 파워 인지도 ▪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구현 필요성 ▪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 1인가구를 위한 중점 추진 정책 ▪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적절성 ▪ 청년특별시 관악 중점 추진 정책 ▪ 반려동물 복지 위한 중점 추진 정책 ▪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기간 ▪ 쓰레기 배출 시간 인지도 ▪ 쓰레기 배출 장소 인지도 ▪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참여도 ▪ 민선 8기 역점 분야 ▪ 민선 8기 구정 만족도 ▪ 관악구 거주 이유 ▪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FGI조사 (심층그룹 인터뷰)	[청소년] ▪ 청소년 관심사와 장래 희망 준비 정도 ▪ 관악구 청소년정책 평가 ▪ 관악구에서 지원하면 참여할 것 같은 프로그램 ▪ 관악구에 건의하는 청소년정책 홍보 방안 ▪ 관악구 꿈나래프로젝트 기대감 [청소년 지원기관 실무자] ▪ 관악구 청소년정책 지원부서 통합 필요 ▪ 관악구 청소년 지원 기관들 간의 접근 편의성 ▪ 방과 후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 형평성

4. 응답자 특성

가. 설문조사

구 분		응답자 (명)	비율 (%)
전 체		1000	100.0
성 별	남성	502	50.2
	여성	498	49.8
연 령	만19~29세	261	26.1
	30~39세	194	19.4
	40~49세	143	14.3
	50~59세	147	14.7
	60대 이상	255	25.5
지 역	제1선거구	272	27.2
	제2선거구	271	27.1
	제3선거구	229	22.9
	제4선거구	228	22.8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2.7
	자영업/판매서비스직	287	28.7
	사무직/관리직/전문직	326	32.6
	가정주부	145	14.5
	학생	80	8.0
	무직/취업준비중/기타	136	13.6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6.9
	5년 이상~10년 미만	165	16.5
	10년 이상~20년 미만	250	25.0
	20년 이상	516	51.6

[지역] 제1선거구 :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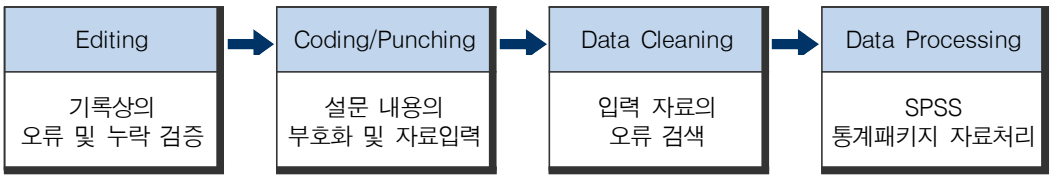
나. FGI조사

1그룹	이름	연령대	거주지	2그룹	이름	연령대	거주지
1	황 ○ ○	중2	신사동	1	윤 ○ ○	고3	은천동
2	곽 ○ ○	중3	서원동	2	고 ○ ○	고3	신림동
3	홍 ○ ○	고2	보라매동	3	강 ○ ○	대학생	신사동
4	이 ○ ○	고2	보라매동	4	강 ○ ○	대학생	신사동
5	황 ○ ○	고2	인헌동	5	윤 ○ ○	대학생	미성동
6	박 ○ ○	고3	인헌동	6	윤 ○ ○	대학생	미성동
7	이 ○ ○	고3	은천동	7	정 ○ ○	대학생	삼성동
8	곽 ○ ○	고3	봉천동				

3그룹 참석자	관악구청소년지원센터,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악청소년센터, 나눔과배움 사회적협동조합 실무자 총 4인

5. 자료 처리 과정 및 분석 방법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프로그램 25버전으로 전산처리함



○ 분석 방법

- 문항별 결과는 열(Row)에 따라 백분율(%)로 산출되며, 결과값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중복응답의 경우, 카테고리의 사례수를 전체 사례수에 근거하여 백분율을 산출함
- 자료는 기본적인 응답자 특성에 따라 문항별로 교차 분석되었음
- 평균값이 필요한 경우 Cross Tabulation에서 평균값 산출함

○ 자료 해석상의 유의점

- 표본조사의 경우 일정 수준의 표본오차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례수의 관찰치(Observed Percentage)에 따른 표본오차(Sampling Error)를 고려해야 함
- 사례수가 충분히 크지 않을 경우(n<30) 극단치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값 또는 세부 집단 간 비교 시 해석의 주의가 필요함
- Rounding Error : 반올림 오차이며, 실제 전체 합은 100%이나 소수점 반올림 과정에서 합이 100.1% 또는 99.9%로 나타나는 현상

제2장 조사 결과 요약

2. 조사결과 요약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악S밸리)의 지역경제 기여도

○ 관악구 내 입주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22. 1월)이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매우 도움된다' 12.9%, '대체로 도움된다' 33.4%, '보통이다' 22.9%, '대체로 도움 안 된다' 7.1%, '전혀 도움 안 된다' 1.0%, '잘 모름' 22,7%임

(n=1000명, 단위:%)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 안 된다	전혀 도움 안 된다	잘 모르겠다
12.9	33.4	22.9	7.1	1.0	22.7

2.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

○ 관악구 내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 13.8%, '대체로 필요' 42.6%, '보통이다' 19.9%, '대체로 불필요' 5.9%, '전혀 불필요' 1.6%, '잘 모름' 16.2%임

(n=1000명, 단위:%)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13.8	42.6	19.9	5.9	1.6	16.2

3. 수해 재난대응 만족도

○ 22년 8월에 발생한 수해재난에 대응해 관악구가 실시한 시설복구 및 지원활동에 대해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 잘함' 15.2%, '대체로 잘함' 41.0%, '보통' 25.4%, '대체로 못함' 6.1%, '매우 못함' 1.8%임 '잘 모름' 10.5%임

(n=1000명, 단위:%)

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	보통이다	대체로 못했다	매우 못했다	잘 모르겠다
15.2	41.0	25.4	6.1	1.8	10.5

4. 강감찬브랜드 파워 인지도

○ 관악구가 매년 10월 낙성대 공원에서 개최하는 강감찬 축제에 대해 개최 시기와 축제 내용에 대해 주민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알고 축제 내용도 알고 있다' 응답은 38.6%이며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축제 내용은 모른다(내용은 모름)' 29.3%, '축제 내용은 알지만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은 모른다(시기는 모름)'가 14.1%이었으며 '전혀 모른다' 응답이 17.9%임

(n=1000명, 단위:%)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축제 내용도 알고 있다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축제 내용은 모른다	축제 내용은 알지만,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은 모른다	전혀 모른다
38.6	29.3	14.1	17.9

5.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구현 필요성

○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로 확대 · 조성하는 계획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 필요' 15.9%, '대체로 필요' 44.0%, '보통' 22.9%, '대체로 불필요' 6.0%, '전혀 불필요' 2.3%, '잘 모름' 8.9%임

(n=1000명, 단위:%)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15.9	44.0	22.9	6.0	2.3	8.9

6.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 관악구가 청소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미래기술교육'을 28.0%로 1순위 응답하였고, 다음은 '진로 · 진학 프로그램'이 23.2%, '심리 · 정서지원' 20.7%, '문화예술 창작지원' 14.0%로 응답됨

(n=1000명, 단위:%)

미래기술 교육	진로·진학 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문화·예술·창작 활동지원	청소년 자치 활동지원	기타	모름/ 무응답
28.0	23.2	20.7	14.0	10.7	0.4	3.1

7. ‘1인가구’를 위한 중점 추진정책

○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자리 제공’이 35.1%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 24.7%, ‘생계비 지원’ 13.6%, ‘사회관계망 형성’ 13.0%, ‘건강돌봄 서비스’ 12.4% 순으로 나타남

○ 가장 중점 추진할 ‘1인가구’ 정책으로 조사된 ‘일자리 제공’은 전년도에 비해 8.8%p(26.3%→35.1%) 증가하였고, 전년도 최우선 정책이었던 ‘주거복지 지원’은 전체 응답 중 2순위로 7.1%p(31.8%→24.7%) 하향된 것으로 나타남

(n=1000명, 단위:%)

1인가구 정책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지원	생계비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돌봄 서비스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2022년	35.1	24.7	13.6	13.0	12.4	-	-	1.3
2021년	26.3	31.8	14.5	13.4	11.4	1.6	0.1	1.1

8.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적절성

○ 전국에서 청년 인구 비중이 1위인 관악구가 청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관악구 행정조직 내 ‘청년문화국’을 신설한 것에 대해 주민 의견을 조사한 결과, ‘매우 적절’ 14.2%, ‘대체로 적절’ 43.3%, ‘보통’ 25.3%, ‘대체로 부적절’ 7.7%, ‘매우 부적절’ 1.0%, ‘잘 모름’ 8.5%임

(n=1000명, 단위:%)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매우 부적절하다	잘 모르겠다
14.2	43.3	25.3	7.7	1.0	8.5

9. 청년특별시 관악 중점 추진정책

○ 머물고 싶은 청년특별시 관악 조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자리 기회 확대’ 47.7%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월세 ·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29.6%), ‘문화공간 확대’(12.0%), ‘근로장려금 지원’(6.3%),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3.6%) 순으로 응답함

(n=1000명, 단위:%)

일자리 기회 확대	월세·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문화공간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	기타	모름/ 무응답
47.7	29.6	12.0	6.3	3.6	0.1	0.7

10. 반려동물 복지 위한 중점 추진정책

○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길고양이 중성화 및 학대방지 사업' 36.9%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사업' 21.8%,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4.7%,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9.0%로 나타남. '잘 모른다'는 유보 응답은 13.4%임

(n=1000명, 단위:%)

길고양이 중성화 및 학대방지 사업	유기동물 보호 사업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기타	모름/ 무응답
36.9	21.8	14.7	9.0	4.3	13.4

11.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기간

○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6개월마다 새로 배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6개월 배정기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현행 6개월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53.8%로 과반을 넘었고 '1년으로 연장 운영' 25.6%, '3개월로 축소 운영'은 15.3%, '잘 모른다'는 유보 응답이 5.3%임

○ '현행 6개월 바람직'은 30대(60.7%), 1선거구(56.3%), 현장/기능직(61.0%)에서 높게 조사됨

(n=1000명, 단위:%)

현행 6개월이 바람직	1년으로 연장 운영이 바람직	3개월로 축소 운영이 바람직	모름/무응답
53.8	25.6	15.3	5.3

12. 쓰레기 배출시간 인지도

○ 깨끗한 거리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주민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쓰레기 배출시간 인지도는 '저녁 시간대(오후 6시~자정)'가 75.3%로 응답돼 관악 구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저녁시간대 배출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한다고 볼 수 있음

○ '언제든지 배출 가능' 의견은 14.8%로 나타났고 '출근 시간대(오전 6시~오전 10시)'가 3.5%, '점심 시간대(오전 11시~오후 2시)' 의견은 2.0%로 나타나 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주민 계도가 필요해 보이며, '오후 5시'(0.1%), '화요일'(0.2%) 응답과 '잘 모름' 응답은 4.1%로 소수임

(n=1000명, 단위:%)

출근 시간대 (오전 6시~10시)	점심 시간대 (오전 11시~오후 2시)	저녁 시간대 (오후 6시~자정)	언제든지 배출 가능	기타	모름/ 무응답
3.5	2.0	75.3	14.8	0.3	4.1

13. 쓰레기 배출장소 인지도

○ 깨끗한 거리 조성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의 정착을 위해 쓰레기 배출장소에 대한 주민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내집 · 내점포 앞'이 89.5% 조사돼 관악구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쓰레기 배출장소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음

○ '주변 전봇대' 응답은 4.8%, '가까운 공터' 2.3%, '대로변' 1.4%로 나타나 배출장소를 잘못 인식하는 주민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해 보이며 기타 의견으로 '지하 쓰레기수거장'(0.1%), 지정구역'(0.5%), '잘 모름'(1.4%)은 소수 의견임

(n=1000명, 단위:%)

내 집, 내 점포 앞	주변 전봇대	가까운 공터	대로변	기타	모름/ 무응답
89.5	4.8	2.3	1.4	0.6	1.4

14.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참여도

○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에 대한 참여 의견을 조사한 결과, '참여' 응답은 79.5%로 매우 높았으며 '미참여' 12.3%, '잘 모름' 8.1%로 조사됨

(n=1000명, 단위:%)

반드시 참여하겠다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	대체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잘 모르 겠다
31.7	47.8	10.0	2.4	8.1

15. 민선 8기 역점 분야

○ 민선 8기에 관악구가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경제 · 일자리'가 42.2%로 가장 우선순위로 응답되었고 다음은 '복지 · 보건' 14.4%, '청년 · 1인가구' 12.5%, '환경 · 공원녹지' 11.7%, '문화 · 교육' 9.4%, '안전 · 교통' 8.5% 순임

(n=1000명, 단위:%)

경제·일자리	복지·보건	청년· 1인가구	환경·공원 녹지	문화·교육	안전·교통	기타	모름/ 무응답
42.2	14.4	12.5	11.7	9.4	8.5	0.4	1.0

16. 민선 8기 구정 만족도

○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매우 잘함' 5.3%, '대체로 잘함' 33.7%, '보통' 44.7%, '대체로 못함' 6.3% '매우 못함 1.4% '잘 모름' 8.6%임

○ 조사 시점이 민선 8기가 시작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시기여서 주민들이 구정 방향성 등을 인지하기 어려워서 구정 만족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관망적 태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n=1000명, 단위:%)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5.3	33.7	44.7	6.3	1.4	8.6

17. 관악구 거주 이유

○ 관악구 거주 이유를 조사한 결과, '학교와 직장 소재지라서'가 33.0%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29.9%, '공원, 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 20.2%, '보육·교육 등 아이 키우기 좋아서' 5.3%, 순으로 응답함

○ 관악구에서 거주하는 이유가 '학교, 직장 또는 사업소재지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2021년 조사 대비 8.8%p(24.2%→3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응답률은 8.6%p(38.5%→29.9%) 감소했으며,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가 좋아서' 응답률은 1.8%p(3.5%→5.3%) 증가하였음

(n=1000명, 단위:%)

관악구 거주 이유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공원, 산 등 자연 환경이 좋아서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2022년	33.0	29.9	20.2	5.3	7.8	0.7	3.1
2021년	24.2	38.5	20.2	3.5	11.5	0.6	1.8

18. 관악구 구정소식 인지 경로

○ 관악구의 구정 소식 경로에 대해 '관악구 지역신문'(16.3%)과 '관악소리 구정소식지' 16.1%가 엇비슷한 응답률로 첫 번째로 꼽혔고, 다음은 '관악구 공식 SNS' 13.7%, '현수막' 12.8%, '관악구청 홈페이지' 11.8%, 'HCN케이블방송' 8.8%, '관악구청 전광판 등 홍보매체' 6.3%, '인터넷신문해피매거진'(4.7%) 순으로 응답됨

○ 현수막에 대한 인지 경로가 지난 해에 비해 9.6%p 하락했지만 20·30대에선 현수막 응답이 평균보다 6%p 높게 응답되었는데 그 이유는 즉자적이고 직관적인 매체라는 특징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므로 청년 대상 홍보 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관악구 구정소식 인지 경로가 '관악구 지역신문'이라는 응답은 2022년 조사에 비해 1.9%p(14.4→16.3%) 증가하였고 '구정소식지(관악소리)' 응답은 전년도 대비 1.0%p(16.1%→15.1%) 증가한 반면,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은 4.7%p 감소, 현수막은 9.6%p 감소함

(n=1000명, 단위:%)

관악구 구정 소식 인지 경로	관악구 지역 신문	구정 소식지 (관악 소리)	관악구 공식 SNS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현수막	관악구청 홈페이지	HCN 케이블 방송	관악구청 홍보매체 (전광판 등)	인터넷 신문 (해피 매거진)	기타 모름/무응답
2022년	16.3	16.1	13.7	12.8	11.8	8.8	6.3	4.7	9.5
2021년	14.4	15.1	18.4	22.4	8.9	10.1	5.2	5.6	-

제3장 조사 결과 분석

3. 조사 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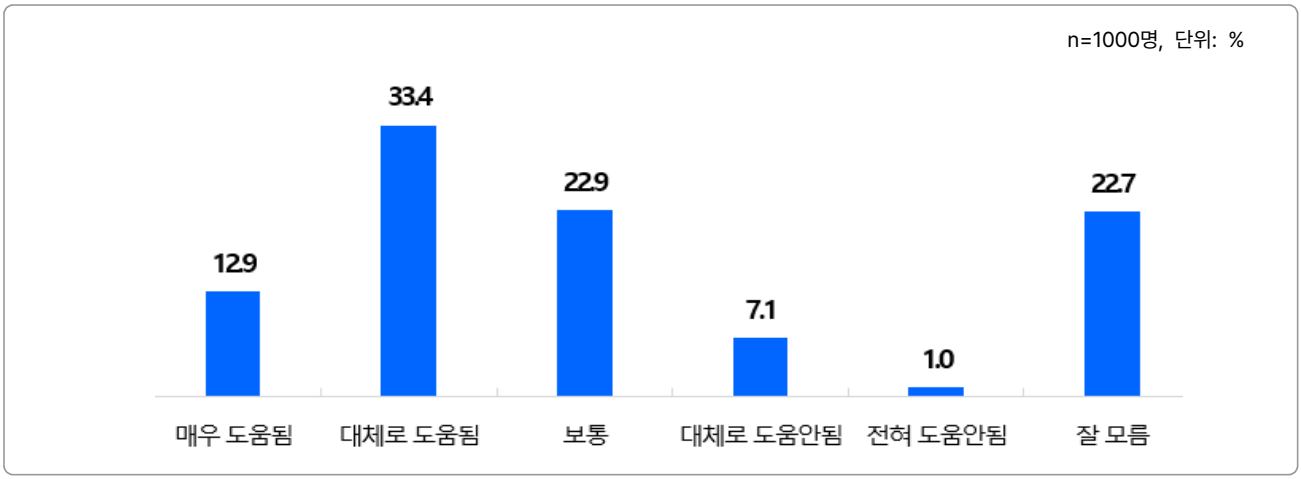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악S밸리)의 지역 경제 기여도

[질문] 관악구는 입주기업에게 세금혜택,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악S밸리)**로 지정되었습니다. 벤처지구 지정은 **관악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도움된다' 12.9%, '대체로 도움된다' 33.4%, '보통' 22.9%, '대체로 도움 안 된다' 7.1%, '전혀 도움 안 된다' 1.0%, '잘 모름' 22,7%임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역 경제 기여도는 **5점 기준 환산 시 3.65점임**

[그림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악S밸리)의 지역 경제 기여도



응답자 특성별	▶ '매우 도움된다와 대체로 도움된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53.9%)와 50대(48.9%), 지역별로는 2선거구(49.3%), 직업별로는 자영업/서비스직(51.3%)에서 높음 ▶ '대체로 도움 안 된다와 전혀 도움 안 된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40대(10.0%), 지역별로는 3선거구(10.1%), 직업별로는 가정주부와 학생층에서 각각 9.7%로 응답됨 ▶ '잘 모름' 응답이 22.7%로 높은 편이며 '보통'도 22.9%여서 지구 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다소 낮은 상황임
요약 및 제언	▶ 관악구는 '관악S밸리' 조성 성과로 2022년 1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입주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벤처창업 중심지로 발전해 가고 있음 ▶ '잘 모름' 응답이 40% 이상인 60대(42.1%)와 주부층(41.8%)에 대해 지구 지정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파생시켜 창업기업 외에 지역경제 전반에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 강구 필요함

[표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관악S밸리)의 지역 경제 기여도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도움이 된다	대체로 도움이 된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점수 기준[1] 5점 환산
전 체		(1000)	12.9	33.4	22.9	7.1	1.0	22.7	(3.65)
성 별	남성	(502)	16.4	37.3	20.2	5.2	0.9	20.0	(3.79)
	여성	(498)	9.4	29.5	25.6	9.1	1.0	25.5	(3.50)
연 령	만 19세~29세	(261)	6.9	37.0	33.8	7.8	0.5	14.0	(3.49)
	30대	(194)	14.3	39.6	28.6	6.6	0.9	10.0	(3.66)
	40대	(143)	13.0	32.6	22.4	9.1	0.9	22.0	(3.61)
	50대	(147)	19.2	29.7	20.1	7.0	1.8	22.2	(3.74)
	60대 이상	(255)	14.3	27.6	9.2	5.7	1.0	42.1	(3.84)
지 역[2]	1선거구	(272)	10.6	34.0	26.5	7.2	0.0	21.7	(3.61)
	2선거구	(271)	10.8	38.5	20.6	6.0	1.8	22.2	(3.65)
	3선거구	(229)	16.2	30.0	22.7	9.0	1.1	21.0	(3.65)
	4선거구	(228)	14.8	30.0	21.4	6.6	0.9	26.4	(3.69)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2.8	47.7	28.2	0.0	0.0	21.3	(3.68)
	자영업/서비스직	(287)	15.2	36.1	21.0	6.5	1.6	19.5	(3.71)
	사무직/전문직	(326)	13.4	34.4	29.3	7.6	0.7	14.5	(3.61)
	가정주부	(145)	8.6	27.4	12.4	8.6	1.1	41.8	(3.58)
	학생	(80)	10.9	35.6	29.9	9.7	0.0	14.0	(3.55)
	무직/취업준비	(133)	14.3	27.8	17.2	5.7	0.7	34.3	(3.75)
	기타	(3)	23.4	23.1	25.2	0.0	0.0	28.4	(3.98)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15.4	28.4	24.0	10.2	3.0	19.0	(3.53)
	5~10년 미만	(165)	11.5	31.6	30.1	7.9	0.6	18.3	(3.56)
	10~20년 미만	(250)	14.1	34.9	25.4	7.6	0.0	17.9	(3.68)
	20년 이상	(516)	12.4	33.9	19.2	6.2	1.3	27.0	(3.68)

1) 점수 기준값은 퍼센트 응답값을 직관적으로 알기 쉽게 인식하도록 5점으로 환산한 값이며, '매우 도움'을 5점으로 '보통'은 3점, '매우 도움 안됨' 1점으로 계산하였고 5점을 기준으로 3점 이상이면 중간값을 넘는 긍정적 평가로 해석할 수 있음

2)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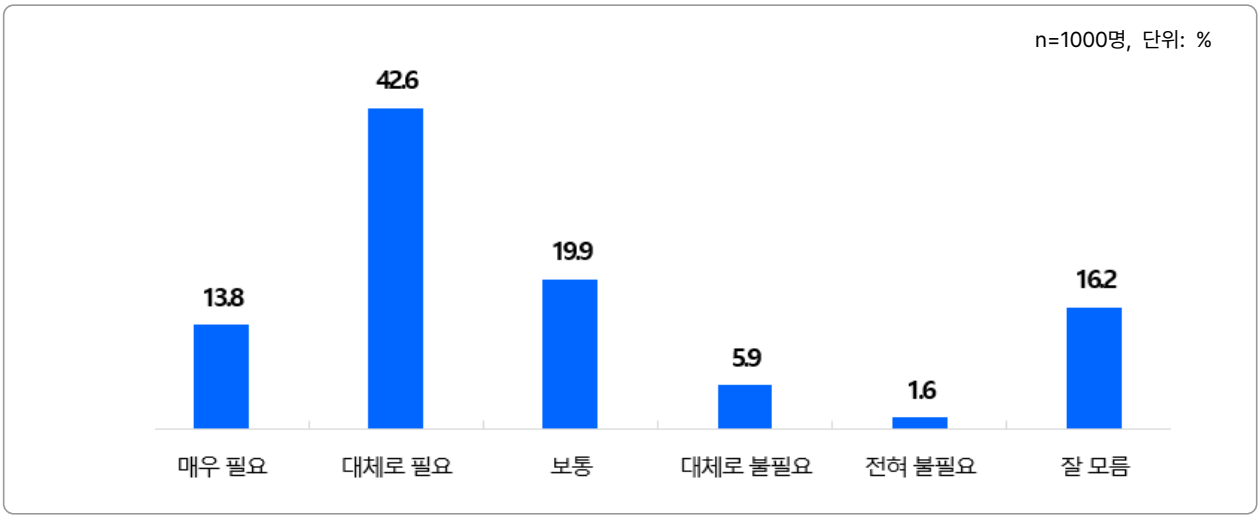
2.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

[질문] 관악구는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 13.8%, '대체로 필요' 42.6%, '보통' 19.9%, '대체로 불필요' 5.9%, '전혀 불필요' 1.6%, '잘 모름' 16.2%임

○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은 **5점 기준 환산 시 3.73점임**

[그림2]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



응답자 특성별	▶ '매우 필요하다와 대체로 필요하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64.2%)에서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4선거구(58.3%), 직업별로는 현장/기능직(67.3%)과 자영업/서비스직(62.6%)에서 높음 ▶ '대체로 불필요하다와 전혀 불필요하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40대(10.3%), 지역별로는 2선거구(8.3%), 직업별로는 무직(8.3%)과 자영업/서비스직(8.1%)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응답함
요약 및 제언	▶ 연령별로는 30~50대와 남성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보다 중소벤처진흥원에 대한 정책 체감도가 더 높게 조사되어 경제 민감층의 호응을 끌어내는 정책으로 분류하여 '홍보대사 임명' 등 친근한 이미지 구축이 필요 ▶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관악구=청년특별시'의 주요 정책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서는 안양시의 '청년벤처도시' 사례처럼 명확한 도시 비전으로 연계하여 20대의 다소 낮은 체감도를 끌어올려야 함

[표2]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 하지 않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잘 모르 겠다	점수 기준 5점 환산
전 체		(1000)	13.8	42.6	19.9	5.9	1.6	16.2	(3.73)
성 별	남성	(502)	16.8	43.7	16.4	6.6	1.5	15.1	(3.80)
	여성	(498)	10.9	41.4	23.5	5.2	1.6	17.4	(3.66)
연 령	만 19세~29세	(261)	7.2	42.8	33.2	7.2	1.2	8.4	(3.52)
	30대	(194)	9.2	55.0	21.1	6.4	1.3	6.9	(3.69)
	40대	(143)	18.2	41.0	16.1	7.2	3.1	14.3	(3.75)
	50대	(147)	20.7	37.8	17.7	5.4	2.6	15.8	(3.81)
	60대 이상	(255)	17.7	36.5	8.9	3.5	0.8	32.6	(3.99)
지 역[3]	1선거구	(272)	15.8	40.9	21.9	6.5	1.3	13.6	(3.73)
	2선거구	(271)	9.7	46.1	20.2	6.2	2.1	15.7	(3.66)
	3선거구	(229)	15.3	39.6	18.5	5.9	1.7	19.0	(3.75)
	4선거구	(228)	14.9	43.4	18.7	4.7	1.1	17.3	(3.80)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15.4	51.9	14.6	5.5	0.0	12.7	(3.88)
	자영업/서비스직	(287)	18.2	44.4	15.8	7.0	1.1	13.5	(3.83)
	사무직/전문직	(326)	10.8	48.9	22.6	5.5	2.1	10.0	(3.67)
	가정주부	(145)	10.8	37.5	16.6	5.2	1.5	28.5	(3.71)
	학생	(80)	8.9	38.4	40.5	5.3	0.0	7.0	(3.55)
	무직/취업준비	(133)	17.1	29.0	15.1	5.6	2.7	30.6	(3.75)
	기타	(3)	46.5	53.5	0.0	0.0	0.0	0.0	(4.46)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18.9	42.3	21.0	5.4	2.2	10.3	(3.78)
	5~10년 미만	(165)	9.4	45.1	27.3	5.6	1.5	11.1	(3.62)
	10~20년 미만	(250)	11.5	44.5	22.1	9.1	1.7	11.1	(3.62)
	20년 이상	(516)	15.7	40.8	16.4	4.4	1.4	21.2	(3.82)

3)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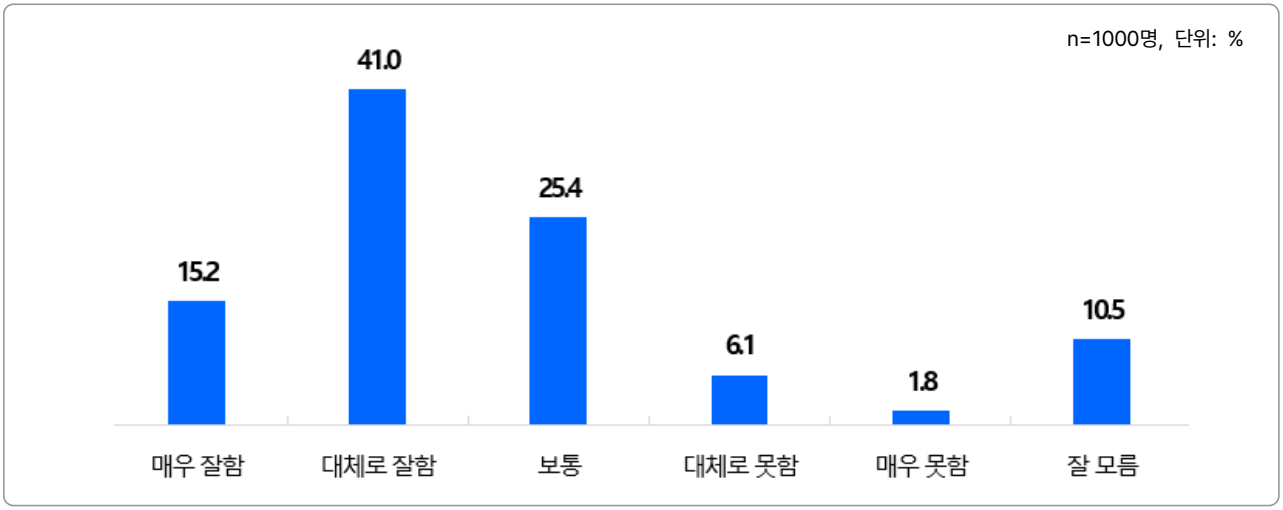
3. 수해 재난대응 만족도

[질문] 관악구는 지난 여름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설을 긴급히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관악구의 **수해복구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잘함' 15.2%, '대체로 잘함' 41.0%, '보통' 25.4%, '대체로 못함' 6.1%, '매우 못함' 1.8%임 '잘 모름' 10.5%임

○ 수해 재난대응 만족도는 **5점 기준 환산 시 3.69점임**

[그림3] 수해 재난대응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 '매우 잘한다와 대체로 잘한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63.5%)에서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4선거구(65.3%), 직업별로는 학생(71.1%)과 가정주부(62.4%)에서 높음 ▶ '대체로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11.9%), 지역별로는 1선거구(12.0%), 직업별로는 현장/기능직(15.5%), 사무직/전문직(12.5%)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요약 및 제언	▶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겪은 재해로 대통령도 방문해 전국적 관심지역이 되었는데 '매우 잘한다와 대체로 잘한다'의 합산 의견은 56.2%로 과반을 넘었고 후속 조치가 잘 되었기에 60대 이상(63.5%), 주부층(62.4%), 4선거구(65.3%)에서는 60%를 넘는 좋은 평가가 나옴 ▶ '반지하 개폐형 방범창 지원'과 같은 단기적 정책이 중장기 침수 대비책과 병행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알리고 내년 장마철 전에 점검기간 계도 필요

[표3] 수해 재난대응 만족도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	보통 이다	대체로 못 했다	매우 못 했다	잘 모르겠다	점수 기준 5점 환산
전 체		(1000)	15.2	41.0	25.4	6.1	1.8	10.5	(3.69)
성 별	남성	(502)	15.8	44.3	23.5	5.7	1.6	9.0	(3.74)
	여성	(498)	14.6	37.7	27.3	6.5	2.0	11.9	(3.64)
연 령	만 19세~29세	(261)	13.2	39.3	27.7	5.2	2.7	11.9	(3.62)
	30대	(194)	8.7	46.7	25.9	9.3	2.6	6.8	(3.53)
	40대	(143)	13.2	38.3	26.4	6.7	3.7	11.7	(3.57)
	50대	(147)	20.7	35.1	26.4	5.2	0.0	12.7	(3.82)
	60대 이상	(255)	20.1	43.4	21.7	4.6	0.4	9.8	(3.87)
지 역[4]	1선거구	(272)	12.8	33.8	32.0	9.4	2.6	9.4	(3.50)
	2선거구	(271)	15.7	42.8	22.0	4.1	1.9	13.5	(3.77)
	3선거구	(229)	12.6	43.3	26.3	5.4	0.3	12.1	(3.71)
	4선거구	(228)	20.1	45.2	20.9	5.1	2.3	6.4	(3.81)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2.6	33.0	34.5	15.5	0.0	14.3	(3.27)
	자영업/서비스직	(287)	19.3	38.1	26.1	4.9	1.1	10.5	(3.78)
	사무직/전문직	(326)	10.3	39.7	31.2	8.3	4.2	6.4	(3.47)
	가정주부	(145)	20.4	42.0	20.7	3.7	0.0	13.2	(3.91)
	학생	(80)	9.8	61.3	8.2	6.0	0.0	14.7	(3.88)
	무직/취업준비	(133)	18.2	38.8	23.5	4.1	1.1	14.3	(3.81)
	기타	(3)	23.4	51.5	25.2	0.0	0.0	0.0	(3.98)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14.8	31.2	28.7	6.2	5.1	14.0	(3.52)
	5~10년 미만	(165)	9.0	37.3	32.3	7.4	2.4	11.5	(3.49)
	10~20년 미만	(250)	14.6	45.1	24.0	2.8	2.1	11.3	(3.76)
	20년 이상	(516)	17.5	41.5	23.5	7.2	1.0	9.2	(3.74)

4)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4. 강감찬 브랜드 파워 인지도

[질문] 관악구는 고려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 자란 도시입니다. 관악구가 **매년 10월 낙성대 공원에서 강감찬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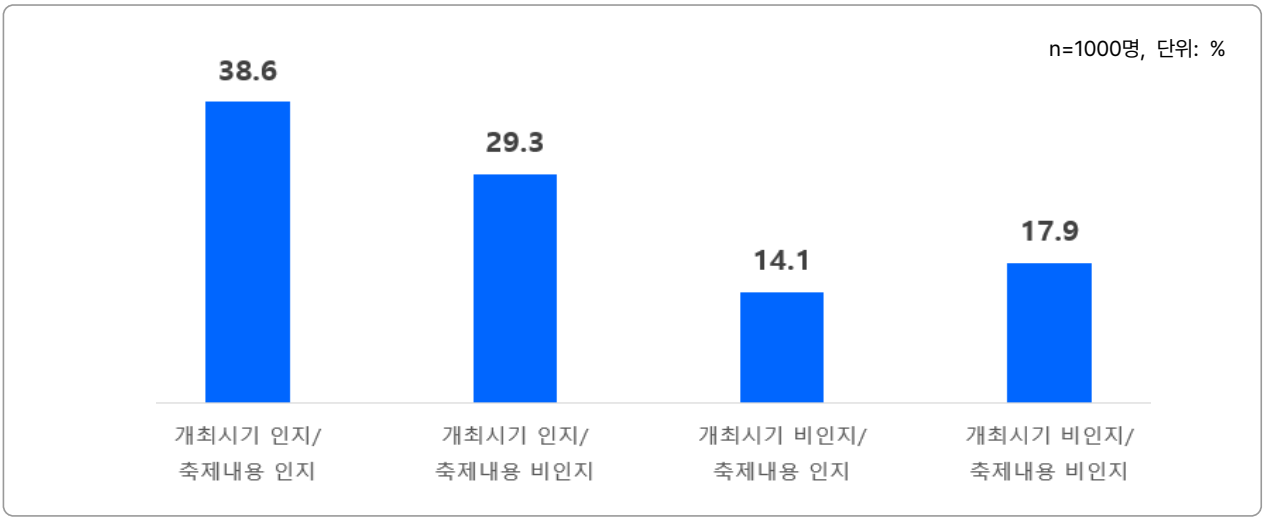
◯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알고 축제 내용도 알고 있다' 응답은 38.6%임(시기와 내용 인지)

◯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축제 내용은 모른다' 29.3%임(시기만 인지)

◯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은 모르지만 축제 내용은 알고 있다' 14.1%임(내용만 인지)

◯ '축제 내용도 모르고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도 모른다' 17.9%임 (모두 모름)

[그림4] 강감찬 브랜드 파워 인지도



응답자 특성별

- 브랜드 파워 인지가 높은 응답층은 연령별로는 50대(55.2%)와 60대(57.1%)고 지역별로는 2선거구(44.8%)와 3선거구(42.0%)이며,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0.7%)와 자영업층(49.3%), 거주기간별은 20년 이상(50.0%)임
- 브랜드 파워 인지도가 전혀 없는 응답층은 연령별로는 20대(24.3%), 지역별로는 1선거구(21.9%), 직업별로는 학생(28.0%),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거주층(24.4%)임

요약 및 제언

- 강감찬 축제 브랜드 파워는 지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내용과 시기 중 하나 이상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축제 내용보다 개최 시기를 더 잘 알고 있음
- '전혀 모름층'은 20대에서 24.3%로 가장 높고 40대(21.8%), 여성층(2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청소년 좌담회에서 강감찬 축제 공연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는 사례가 있어서 축제 프로그램 중 대표 프로그램을 만들고 유아·초등학생 참여를 통해 학부모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
-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연 프로그램과 결합해 개최된다면 인지도가 확고해질 것임

[표4] 강감찬 브랜드 파워 인지도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축제 내용도 알고 있다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축제 내용은 모른다	축제 내용은 알지만,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은 모른다	전혀 모른다
전 체		(1000)	38.6	29.3	14.1	17.9
성 별	남성	(502)	39.3	32.4	12.4	15.9
	여성	(498)	38.0	26.2	15.9	20.0
연 령	만 19세~29세	(261)	20.1	31.1	24.5	24.3
	30대	(194)	33.1	38.8	16.9	11.3
	40대	(143)	30.1	31.5	16.6	21.8
	50대	(147)	55.2	26.6	4.2	14.0
	60대 이상	(255)	57.1	20.6	5.7	16.6
지 역[5]	1선거구	(272)	28.4	29.2	20.4	21.9
	2선거구	(271)	44.8	31.1	9.8	14.4
	3선거구	(229)	42.0	25.9	16.0	16.1
	4선거구	(228)	40.1	30.7	10.0	19.2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31.0	32.8	28.0	8.2
	자영업/서비스직	(287)	49.3	25.4	8.3	17.0
	사무직/전문직	(326)	28.5	37.2	19.0	15.2
	가정주부	(145)	50.7	18.1	10.4	20.8
	학생	(80)	19.2	31.2	21.6	28.0
	무직/취업준비	(133)	40.0	29.5	11.1	19.3
	기타	(3)	51.5	0.0	23.4	25.2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22.7	30.2	22.7	24.4
	5~10년 미만	(165)	20.7	33.9	21.7	23.7
	10~20년 미만	(250)	31.5	34.5	16.9	17.1
	20년 이상	(516)	50.0	25.2	9.2	15.6

5)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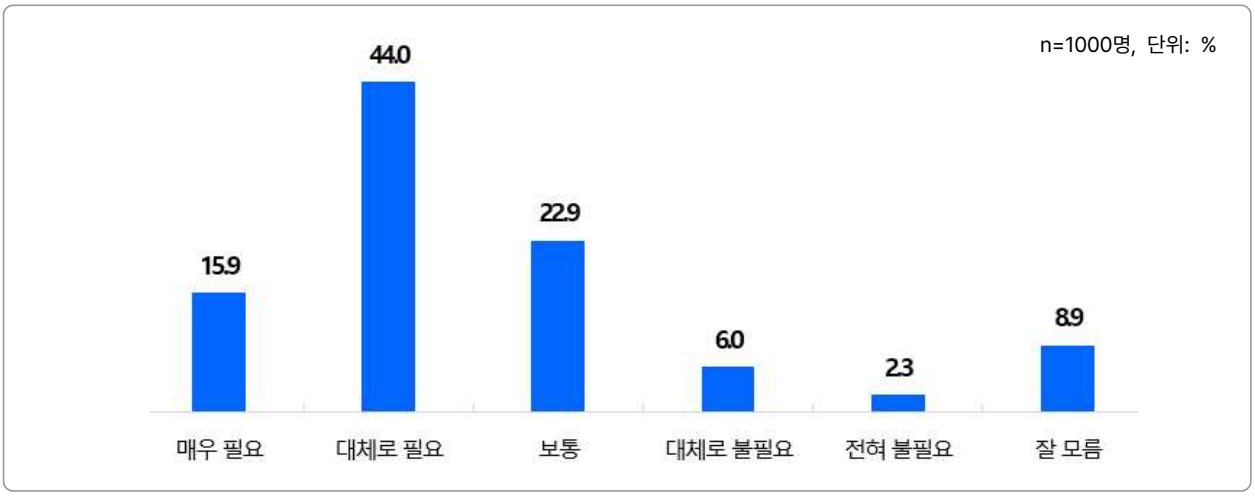
5.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구현 필요성

[질문] 관악구는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필요' 15.9%, '대체로 필요' 44.0%, '보통' 22.9%, '대체로 불필요' 6.0%, '전혀 불필요' 2.3%, '잘 모름' 8.9%임

○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확대 필요성은 **5점 기준 환산 시 3.71점임**

[그림5]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구현 필요성



응답자 특성별

- '매우 필요하다와 대체로 필요하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50대(66.9%)에서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3선거구(64.7%), 직업별로는 주부층(68.5%)과 자영업/서비스직(62.6%)에서 높음
- '대체로 불필요하다와 매우 불필요하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12.3%), 40대(12.2%), 지역별로는 2선거구(10.3%), 직업별로는 현장/기능직(23.9%)에서 응답됨

요약 및 제언

- 관악구는 여성친화도시로서 아동,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안전'과 '돌봄'에 중점을 두어 왔는데 이를 더 확대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안심귀갓길' 확대 및 1인가구 안전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여성안전 반상회' 확장을 통해 20대(53.5%)와 학생(50.6%)의 필요성 체감도를 더 올려야 함
- 양성평등이 구현되는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각 계층의 전반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함

[표5]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구현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필요하다	대체로 필요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다	점수 기준 5점 환산
전 체		(1000)	15.9	44.0	22.9	6.0	2.3	8.9	(3.71)
성 별	남성	(502)	10.7	39.9	26.8	7.5	4.5	10.7	(3.50)
	여성	(498)	21.1	48.2	18.9	4.6	0.2	7.1	(3.92)
연 령	만 19세~29세	(261)	13.3	40.1	34.0	5.9	1.8	4.8	(3.60)
	30대	(194)	17.2	44.5	22.2	6.7	5.6	3.8	(3.63)
	40대	(143)	16.5	40.5	23.6	7.3	4.9	7.2	(3.61)
	50대	(147)	18.5	48.4	16.6	2.5	0.0	13.9	(3.96)
	60대 이상	(255)	15.6	47.0	15.2	6.9	0.4	14.9	(3.83)
지 역[6]	1선거구	(272)	12.5	45.6	25.7	5.4	2.6	8.2	(3.65)
	2선거구	(271)	16.5	46.5	20.8	6.2	4.1	5.9	(3.69)
	3선거구	(229)	21.0	43.7	17.4	6.6	1.0	10.3	(3.86)
	4선거구	(228)	13.9	39.4	27.5	5.9	1.3	11.9	(3.67)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9.3	42.6	21.1	15.3	8.6	3.2	(3.30)
	자영업/서비스직	(287)	15.7	46.9	22.7	6.0	0.0	8.6	(3.79)
	사무직/전문직	(326)	15.4	42.4	27.8	6.3	5.2	2.9	(3.58)
	가정주부	(145)	17.4	51.1	14.2	3.3	0.6	13.4	(3.94)
	학생	(80)	14.3	36.2	26.3	9.8	3.2	10.1	(3.54)
	무직/취업준비	(133)	18.3	38.1	18.9	4.4	0.6	19.7	(3.86)
	기타	(3)	0.0	76.6	23.4	0.0	0.0	0.0	(3.77)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22.6	33.7	27.3	9.0	2.7	4.8	(3.68)
	5~10년 미만	(165)	10.1	45.3	26.2	8.8	6.1	3.6	(3.46)
	10~20년 미만	(250)	12.8	49.4	24.4	5.0	1.4	6.9	(3.72)
	20년 이상	(516)	18.3	42.3	20.5	5.2	1.5	12.1	(3.80)

6)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6.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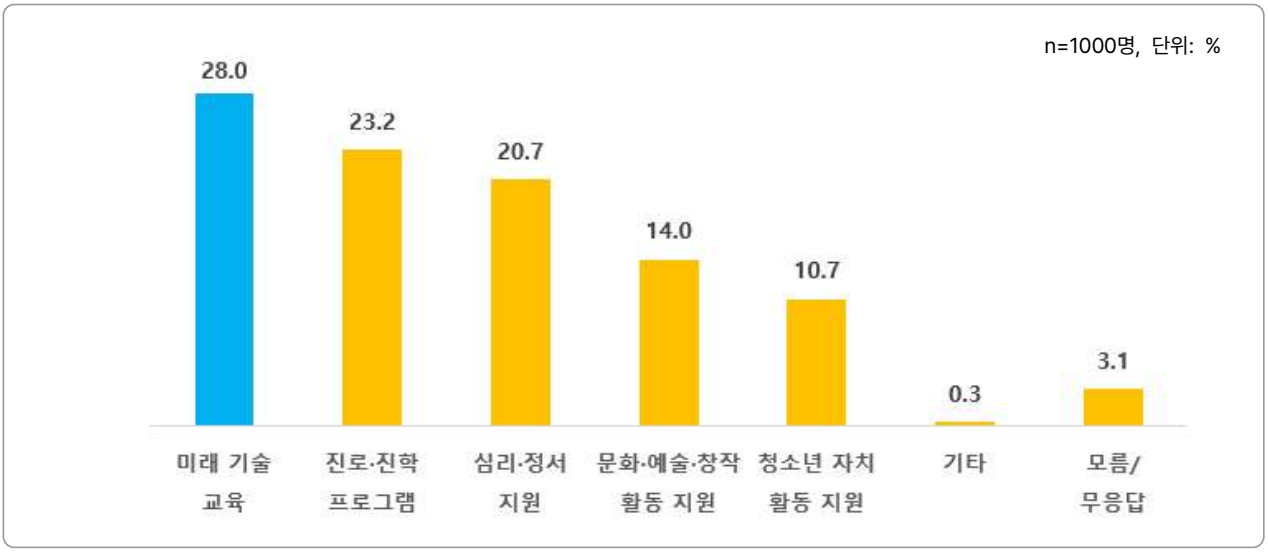
[질문] 관악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u>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u>**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래기술교육'이 28.0%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진로·진학 프로그램' 23.2%, '심리·정서 지원' 20.7%,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14.0%,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10.7% 순임

○ 기타 의견으로 '퇴폐유흥업소 최소화', '비행청소년 단속', '안전의식 함양' 등은 소수 의견에 속했고 '잘 모름'은 3.1%임

○ 직업별로 보면 학생층에서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33.9%로 1순위에 응답됨

[그림6]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응답자 특성별

-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1위는 '미래기술교육'이지만, 2순위는 남성은 '진로·진학 프로그램'인 반면, 여성은 '심리·정서 지원'이 높게 응답됨
- 연령별 1순위 응답은 20대는 '진로·진학 프로그램'(32.0%), 30대는 '심리·정서 지원'(25.7%), 40대(25.2%)와 50대(34.0%), 60대(39.2%)에서는 '미래기술교육'을 1순위로 응답함
- 직업별로는 현장/기능직(37.9%), 사무직/전문직(26.5%), 학생(33.9%)에서 '진로·진학 프로그램'이 1순위이고 자영업/서비스직(33.2%), 가정주부(35.1%), 무직/취업준비층(27.0%)은 '미래기술교육'이 1순위임
- 기타(51.7%)층에선 '심리·정서 지원'을 1순위로 응답하였음

요약 및 제언

- 청소년 좌담회 FGI 결과를 포함해서 볼 때 '진로·진학 지원'이 최우선 관심사였고 20대 역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32.0%나 선호함
- 청소년 관심 분야의 전문가 릴레이 초청 강연을 학교와 연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타 자치구와 비교해 관악구는 서울대 멘토링이 특화되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청소년정책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됨
- '미래기술교육(코딩, 영상편집 등)'에 대해 자영업/서비스직과 50·60대에서 각각 33.2%, 34.0%, 39.2%로 높게 응답해 부모세대 입장에서 청소년들에게 '미래기술교육'을 지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엿보임

[표6] 청소년을 위한 중점 추진 정책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미래기술 교육	진로·진학 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문화·예술·창작 활동 지원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28.0	23.2	20.7	14.0	10.7	0.3	3.1
성 별	남성	(502)	29.1	25.3	16.7	13.8	11.3	0.4	3.2
	여성	(498)	26.8	21.1	24.8	14.1	10.0	0.2	3.1
연 령	만 19세~29세	(261)	18.5	32.0	16.5	18.1	14.2	0.0	0.6
	30대	(194)	23.4	22.1	25.7	15.8	11.9	1.0	0.0
	40대	(143)	25.2	22.6	22.1	18.1	10.5	1.0	0.5
	50대	(147)	34.0	23.0	19.6	7.8	12.1	0.0	3.5
	60대 이상	(255)	39.2	15.4	21.1	9.6	5.3	0.0	9.3
지 역[7]	1선거구	(272)	27.1	23.7	19.0	16.0	10.1	1.3	2.9
	2선거구	(271)	25.1	26.3	24.3	15.6	6.4	0.0	2.4
	3선거구	(229)	29.0	24.1	19.4	10.5	11.8	0.0	5.2
	4선거구	(228)	31.3	18.1	19.9	13.2	15.2	0.0	2.3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28.7	37.9	10.2	9.5	13.7	0.0	0.0
	자영업/서비스직	(287)	33.2	20.7	20.6	11.6	10.3	0.2	3.4
	사무직/전문직	(326)	21.8	26.5	22.4	15.6	12.6	0.9	0.3
	가정주부	(145)	35.1	16.0	22.5	11.5	7.8	0.0	7.2
	학생	(80)	22.8	33.9	6.3	21.5	13.4	0.0	2.0
	무직/취업준비	(133)	27.0	19.1	25.0	14.5	7.9	0.0	6.6
	기타	(3)	25.2	23.1	51.7	0.0	0.0	0.0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25.9	25.2	18.4	16.3	12.9	1.2	0.0
	5~10년 미만	(165)	22.5	24.2	18.1	20.2	14.4	0.4	0.0
	10~20년 미만	(250)	27.4	24.9	19.7	13.2	12.3	0.5	2.1
	20년 이상	(516)	30.2	21.8	22.4	12.0	8.4	0.1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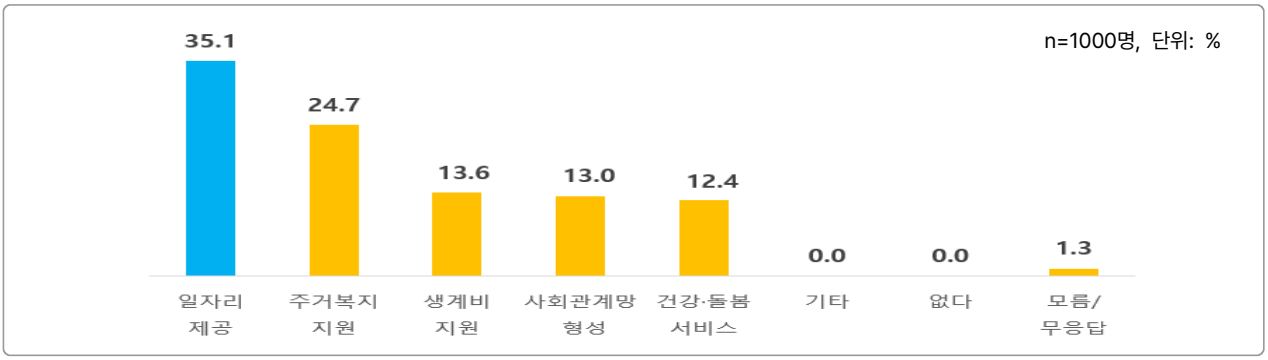
7)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7. '1인가구'를 위한 중점 추진 정책

[질문] 관악구는 전국에서 '1인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관악구에서 **'1인가구'를 위해 <u>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u>**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인가구' 정책 중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일자리 제공'이 35.1%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주거복지 지원' 24.7%, '생계비 지원' 13.6%, '사회관계망 형성' 13.0%, '건강돌봄 서비스' 12.4% 순이며 '잘 모름' 응답은 1.3%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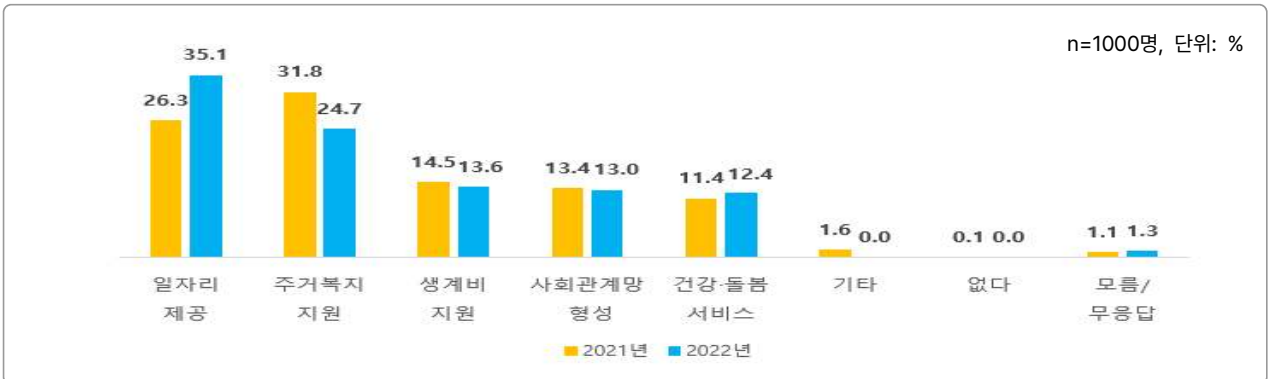
[그림7] '1인가구'를 위한 중점 추진 정책



응답자 특성별

- 모든 지역과 성별에서 '일자리 제공'이 1순위로 응답됐는데 연령별로는 50대(54.3%)가 가장 높고 다음이 60대(44.1%)이며 직업별로는 자영업/서비스직(46.8%)과 무직/취업준비층(40.1%)에서도 40%가 넘음
- '주거복지 지원'은 연령층별로 보면 30대(36.7%), 40대(28.5%)에서, 직업별로는 사무직/전문직(33.1%), 학생(27.3%)에서, 거주기간은 5년 미만(39.7%)과 5~10년 미만 거주층(30.7%)에서 1순위로 응답됨

[그림8] '1인가구'를 위한 중점 추진 정책 연도별 비교



1인가구 정책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지원	생계비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돌봄 서비스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2022년	35.1	24.7	13.6	13.0	12.4	0.0	0.0	1.3
2021년	26.3	31.8	14.5	13.4	11.4	1.6	0.1	1.1

연도별 비교	▶ 2021년 조사와 비교하면, ‘일자리 제공’이 26.3%→35.1%로 8.8%p 상승하고, 주거복지 지원이 31.8%→24.7%로 7.1%p 하락해 두 항목의 순위가 역전되어 ‘일자리 제공’이 ‘1인가구’ 정책 1순위로 응답됨 ▶ ‘생계비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돌봄서비스’ 응답률은 전년도와 유사함
요약 및 제언	▶ 성, 연령, 지역, 직업 등 대부분 계층에서 ‘일자리 제공’ 응답률이 높은 것은 2023년 경제전망이 어둡기 때문으로 추정됨 ▶ 하지만 관악구의 ‘1인가구(혼족가구)’ 실태는 20·30대 젊은층이 41%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도시 정체성과의 연계성에 착안하여 ‘1인가구(혼족가구)’ 대상 SNS를 활용한 임대주택 분양, 입주 등의 주거 정보 제공이 매우 중요해 보임

[표7] ‘1인가구’를 위한 중점 추진 정책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일자리 제공	주거복지 지원	생계비 지원	사회관계망 형성	건강·돌봄 서비스	기타/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35.1	24.7	13.6	13.0	12.4	1.3
성 별	남성	(502)	36.8	23.9	12.0	15.5	10.5	1.3
	여성	(498)	33.3	25.4	15.2	10.5	14.4	1.2
연 령	만 19세~29세	(261)	31.9	24.3	17.6	19.7	6.0	0.6
	30대	(194)	21.0	36.7	13.9	15.4	13.0	0.0
	40대	(143)	24.0	28.5	13.5	16.3	17.3	0.5
	50대	(147)	54.3	17.1	7.9	8.9	11.9	0.0
	60대 이상	(255)	44.1	18.1	12.6	4.9	16.1	4.1
지 역[8]	1선거구	(272)	35.8	28.6	12.8	11.4	10.2	1.2
	2선거구	(271)	37.4	23.0	11.8	16.2	10.7	0.9
	3선거구	(229)	36.0	26.5	11.0	11.6	13.5	1.3
	4선거구	(228)	30.5	20.1	19.3	12.5	16.0	1.6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33.7	33.3	9.3	9.5	14.2	0.0
	자영업/서비스직	(287)	46.8	18.4	9.7	14.2	10.9	0.0
	사무직/전문직	(326)	25.5	33.1	13.8	16.4	11.0	0.2
	가정주부	(145)	37.3	19.5	13.7	7.5	17.7	4.2
	학생	(80)	21.1	27.3	25.3	17.5	8.8	0.0
	무직/취업준비	(133)	40.1	20.4	14.5	5.9	14.9	4.3
	기타	(3)	0.0	0.0	48.5	28.4	23.1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22.3	39.7	15.9	11.5	10.5	0.0
	5~10년 미만	(165)	25.2	30.7	20.7	12.2	10.6	0.6
	10~20년 미만	(250)	31.9	28.5	8.3	19.2	10.7	1.4
	20년 이상	(516)	41.5	18.9	13.6	10.4	14.1	1.6

8)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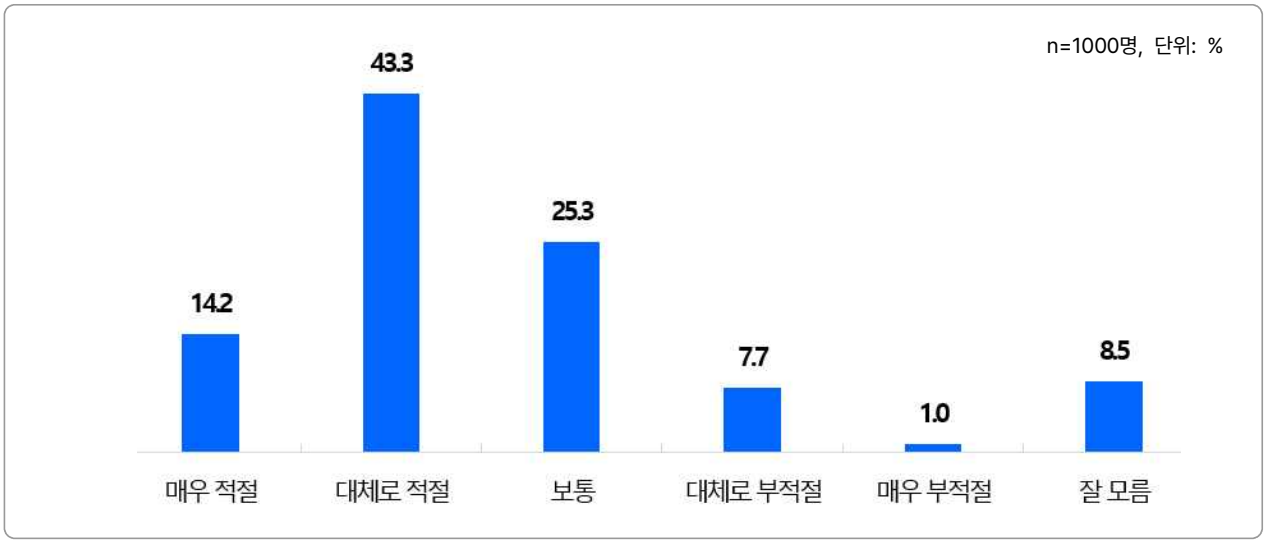
8.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적절성

[질문] 청년 인구비중 전국 1위인 관악구는 청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청년문화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적절' 14.2%, '대체로 적절' 43.3%, '보통' 25.3%, '대체로 부적절' 7.7%, '매우 부적절' 1.0%, '잘 모름' 8.5%임

○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적절성은 **5점 기준 환산 시 3.68점임**

[그림9]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적절성



응답자 특성별	▶ '매우 적절하다와 대체로 적절하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50대(72.5%)에서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4선거구(60.5%), 직업별로는 현장/기술직(72.1%)과 가정주부(61.9%)에서 높음 ▶ '대체로 부적절하다와 매우 부적절하다'의 합산 의견은 전체 중 8.7%가 응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12.7%), 지역별로는 1선거구(10.7%), 직업별로는 사무/전문직(12.0%)에서 높게 응답됨
요약 및 제언	▶ '청년문화국'은 지자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설치되는 것으로 청년과 문화를 아우르겠다는 정책 취지를 갖고 있는데 수혜대상층인 청년의 부모세대인 50대에서 긍정평가가 높은 것은 특기할 대목임 ▶ 청년정책 통합플랫폼인 '관악청년청'과 '중소벤처진흥청'의 설립이 주는 의미는 관악구의 도시 정체성과도 연계될 수 있음

[표8]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적절성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적절하다	대체로 적절하다	보통이다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매우 부적절하다	잘 모르겠다	점수 기준 5점 환산
전 체		(1000)	14.2	43.3	25.3	7.7	1.0	8.5	(3.68)
성 별	남성	(502)	14.9	44.6	23.2	8.4	1.3	7.6	(3.68)
	여성	(498)	13.6	42.0	27.5	6.9	0.6	9.5	(3.67)
연 령	만 19세~29세	(261)	10.7	41.6	28.2	12.1	0.6	6.9	(3.53)
	30대	(194)	11.1	45.0	28.6	9.2	0.8	5.3	(3.60)
	40대	(143)	13.4	38.4	28.6	7.9	3.4	8.2	(3.55)
	50대	(147)	19.4	53.1	19.9	0.9	0.0	6.8	(3.98)
	60대 이상	(255)	17.7	40.9	21.2	5.8	0.7	13.8	(3.80)
지 역[9]	1선거구	(272)	13.9	37.2	30.6	9.6	1.1	7.6	(3.57)
	2선거구	(271)	12.6	46.4	24.1	7.4	0.8	8.6	(3.68)
	3선거구	(229)	15.9	44.5	21.2	7.0	1.9	9.5	(3.72)
	4선거구	(228)	14.9	45.6	24.7	6.3	0.0	8.6	(3.76)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8.1	64.0	19.7	2.6	5.6	0.0	(3.66)
	자영업/서비스직	(287)	18.1	42.2	22.6	8.5	0.9	7.7	(3.74)
	사무직/전문직	(326)	11.1	41.7	29.0	10.6	1.4	6.2	(3.54)
	가정주부	(145)	15.8	46.1	22.0	3.5	0.0	12.6	(3.85)
	학생	(80)	9.9	43.6	32.0	7.5	0.0	7.0	(3.60)
	무직/취업준비	(133)	15.2	42.2	23.2	4.5	0.6	14.3	(3.78)
	기타	(3)	28.4	48.3	23.4	0.0	0.0	0.0	(4.05)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8.6	43.5	23.2	16.2	0.0	8.5	(3.49)
	5~10년 미만	(165)	13.6	37.2	35.6	6.5	0.0	7.1	(3.62)
	10~20년 미만	(250)	12.9	49.2	18.4	10.7	1.3	7.5	(3.67)
	20년 이상	(516)	15.8	42.4	25.7	5.4	1.2	9.5	(3.73)

9)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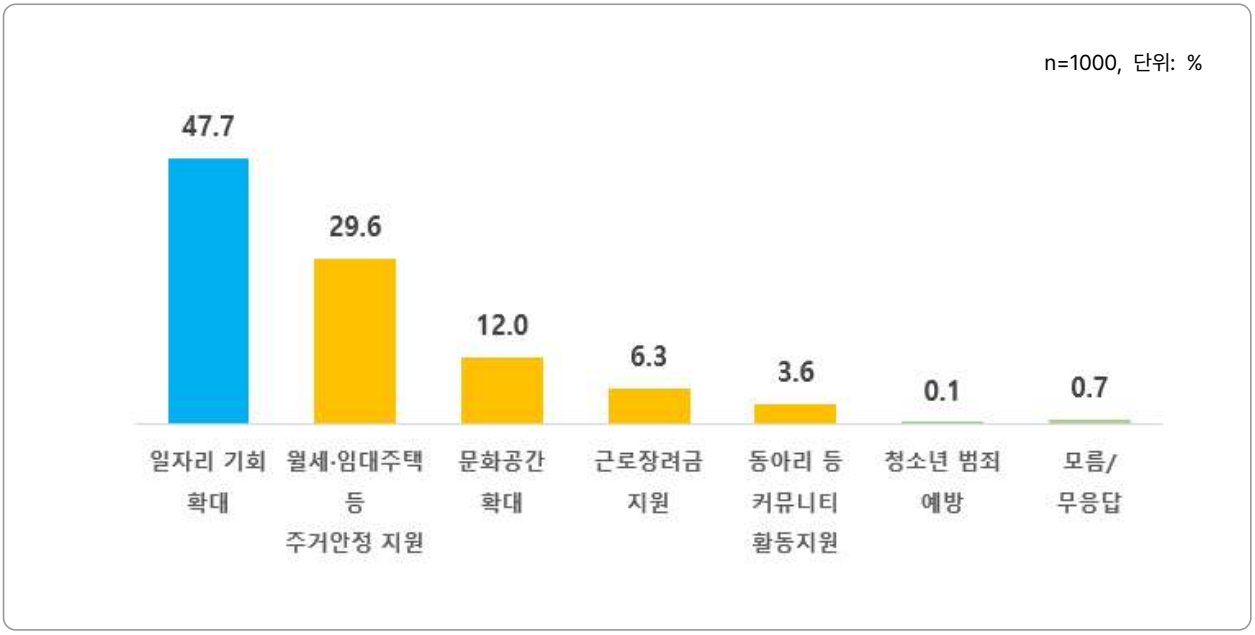
9. 청년특별시 관악 중점 추진 정책

[질문] 관악구에서 **청년들을 위해 <u>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u>**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자리 기회 확대'가 47.7%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월세·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29.6%, '문화공간 확대' 12.0%로 응답됨

○ '근로장려금 지원'(6.3%),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 지원'(3.6%), '청소년 범죄 예방'(0.1%)은 소수 의견이었으며 '잘 모름'은 0.7%임

[그림10] 청년특별시 관악 중점 추진 정책



응답자 특성별

- 20·30대에선 '월세·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이 35.7%와 43.6%로 1순위 응답된 반면, 40·50·60대에서는 '일자리 기회 확대'가 45.7%, 59.1%, 70.0%로 가장 많이 응답됨
- 직업별로 볼때 '일자리 기회 확대'를 1순위로 응답한 층은 자영업/서비스직(53.8%), 가정주부(69.1%), 무직/취업준비층(59.4%)에서, '월세·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은 현장/기능직(51.5%), 사무직/전문직(39.7%), 학생층(34.9%)에서 높게 응답함

요약 및 제언

- 민선 8기 구정 만족도가 높은 층에서도 '일자리 기회 확대'가 42.4%로 1순위에 응답되어 '일자리 기회 확대'와 구정 만족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2022년에 있었던 청소년축제의 호응도가 높았기에 청년특별시 관악구만의 청년축제 기획 및 메타버스를 이용한 홍보 수단 변화도 모색할 필요
- 민선 8기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정책들 중 '청년문화국 신설'(57.5%), '여성친화도시 조성'(59.9%), '중소벤처진흥원 설립'(56.4%)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지지 의견이 과반을 넘어 60%에 달하고 있어 정책 추진 동력이 확보된 분위기이므로 '청년'이란 테마를 도시 정체성으로까지 연동할 필요가 있음
- 경제기대감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구의 정책이 '일자리 기회 확대'와 '주거비 지원'에 집중되길 바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점은 2023년 정책 추진을 위해 눈여겨 볼 대목임

[표9] 청년특별시 관악 중점 추진 정책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일자리 기회 확대	월세·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문화공간 확대	근로장려금 지원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지원	기타	모름/ 무응답
전 체		(1000)	47.7	29.6	12.0	6.3	3.6	0.1	0.7
성 별	남성	(502)	45.5	30.3	13.5	7.0	2.7	0.1	0.8
	여성	(498)	49.9	28.9	10.4	5.7	4.6	0.0	0.6
연 령	만 19세~29세	(261)	32.3	35.7	16.2	10.1	5.7	0.0	0.0
	30대	(194)	31.9	43.6	15.7	4.8	4.1	0.0	0.0
	40대	(143)	45.7	30.3	10.5	8.0	4.5	0.5	0.5
	50대	(147)	59.1	22.2	12.5	3.6	2.5	0.0	0.0
	60대 이상	(255)	70.0	16.5	5.2	4.4	1.4	0.0	2.5
지 역[10]	1선거구	(272)	48.8	31.5	8.8	6.3	4.0	0.3	0.3
	2선거구	(271)	48.5	30.1	14.7	4.4	1.7	0.0	0.7
	3선거구	(229)	49.8	25.5	10.5	9.2	3.9	0.0	1.2
	4선거구	(228)	43.3	30.8	13.9	5.9	5.2	0.0	0.8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38.7	51.5	2.6	7.2	0.0	0.0	0.0
	자영업/서비스직	(287)	53.8	28.0	10.2	5.6	2.2	0.0	0.3
	사무직/전문직	(326)	33.3	39.7	14.7	7.5	4.5	0.2	0.2
	가정주부	(145)	69.1	13.2	6.3	5.0	4.4	0.0	2.0
	학생	(80)	29.7	34.9	23.7	5.6	6.1	0.0	0.0
	무직/취업준비	(133)	59.4	18.8	10.6	6.6	2.7	0.0	1.9
	기타	(3)	28.4	23.1	0.0	25.2	23.4	0.0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22.0	49.8	16.7	4.0	7.5	0.0	0.0
	5~10년 미만	(165)	29.5	44.3	11.7	11.0	3.5	0.0	0.0
	10~20년 미만	(250)	43.3	30.2	12.7	7.3	5.9	0.0	0.7
	20년 이상	(516)	59.1	21.9	11.0	4.7	2.1	0.1	1.0

10)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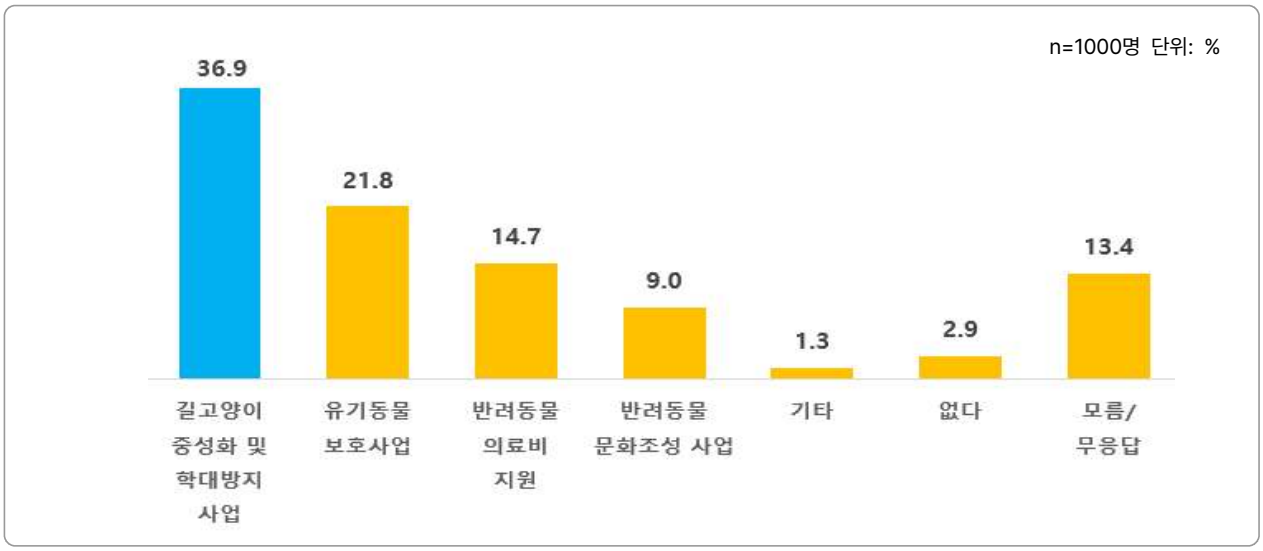
10. 반려동물 복지 위한 중점 추진 정책

[질문] 관악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습니다. 관악구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길고양이 중성화 및 학대방지 사업'이 36.9%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유기 동물 보호사업' 21.8%,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14.7% 순으로 상위에 속했으며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 9.0%, 기타 의견으로 '견주에게 지원'(0.9%), '반려동물만 다니는 통로 마련'(0.1%), '책임성 있는 사람만 키우도록 법적 제도 마련'(0.1%) 등은 소수 의견에 속했음

○ 기타·없다·잘 모름 의견은 17.6%였음

[그림11] 반려동물 복지 위한 중점 추진 정책



응답자 특성별

- 모든 연령과 지역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및 학대방지 사업'이 가장 높게 응답되었는데 이는 뉴스 등을 통해 캣맘 갈등이 많이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음
- 연령별로는 30대에서, 지역별로는 1·4선거구에서 길고양이 관련 의견이 다소 높게 나타남
- 견주에 대한 제도화나 지원에 대해서는 아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임
-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었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문화는 지속적으로 의식개선이 필요한 분야임. 최근에는 반려동물 학대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도를 높여가야 함

요약 및 제언

- 전반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유기동물에 대한 학대 방지와 보호사업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길고양이 관련 정책에 대해선 30대(42.9%), 자영업/서비스직(42.6%), 학생층(41.4%)에서 관심도가 높아 이들을 타겟으로 홍보 수립
- 1인 고령가구 중심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및 반려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 검토

[표10] 반려동물 복지 위한 중점 추진 정책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길고양이 중성화 및 학대방지 사업	유기동물 보호사업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전 체		(1000)	36.9	21.8	14.7	9.0	1.3	2.9	13.4
성 별	남성	(502)	37.0	18.5	15.7	10.7	1.5	3.2	13.5
	여성	(498)	36.9	25.2	13.6	7.3	1.1	2.7	13.2
연 령	만 19세~29세	(261)	37.9	28.5	19.7	7.8	0.0	0.6	5.5
	30대	(194)	42.9	22.7	16.4	12.9	1.0	1.7	2.4
	40대	(143)	38.6	24.2	15.0	13.6	1.0	3.2	4.4
	50대	(147)	34.9	20.2	14.3	8.8	0.0	5.3	16.5
	60대 이상	(255)	31.7	14.0	8.1	4.8	3.8	4.7	32.9
지 역[11]	1선거구	(272)	39.9	22.2	14.9	9.1	0.3	2.6	11.0
	2선거구	(271)	33.5	25.2	16.7	7.0	1.4	2.9	13.3
	3선거구	(229)	35.3	19.6	11.1	11.4	3.1	3.4	16.1
	4선거구	(228)	39.1	19.7	15.4	8.8	0.6	2.8	13.5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32.5	24.2	17.6	20.1	0.0	0.0	5.6
	자영업/서비스직	(287)	42.6	19.4	11.9	5.3	0.3	4.3	16.2
	사무직/전문직	(326)	34.5	26.2	19.5	12.9	0.8	1.6	4.5
	가정주부	(145)	32.2	18.4	10.4	3.9	2.5	3.8	28.9
	학생	(80)	41.4	23.9	22.0	11.0	0.0	0.0	1.6
	무직/취업준비	(133)	33.8	18.6	8.2	9.8	4.4	4.5	20.8
	기타	(3)	51.5	23.4	25.2	0.0	0.0	0.0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31.0	29.4	18.5	7.7	0.0	0.0	13.4
	5~10년 미만	(165)	36.9	24.0	18.8	13.8	1.2	1.6	3.8
	10~20년 미만	(250)	39.9	29.5	12.1	8.5	0.0	3.3	6.7
	20년 이상	(516)	36.3	16.4	14.0	7.9	2.1	3.6	19.7

11)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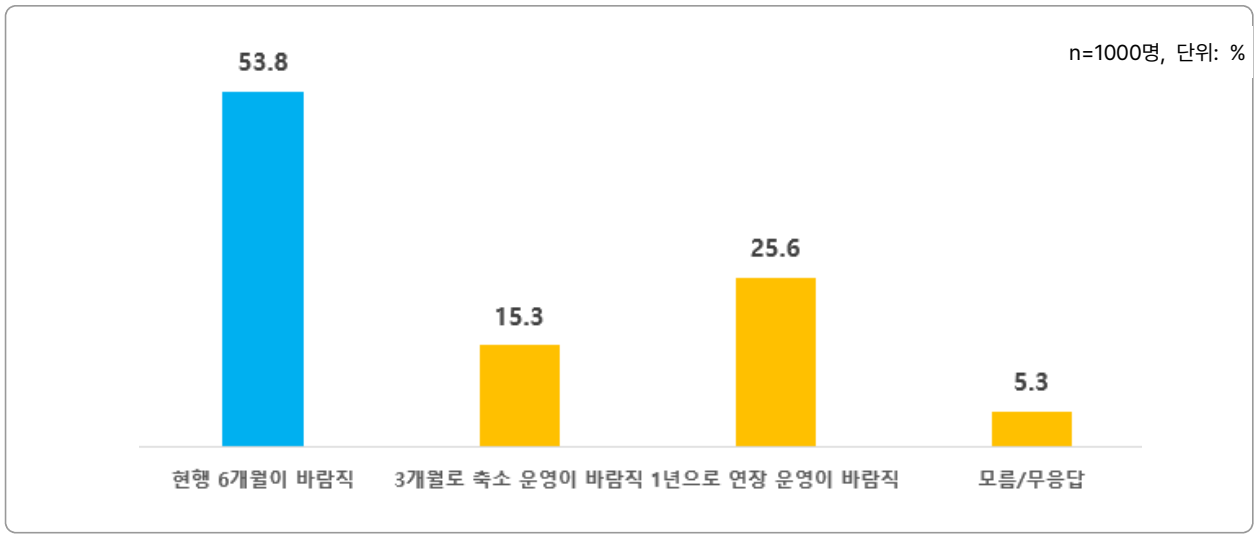
11.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기간

[질문] 관악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6개월마다 새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 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행 6개월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이 53.8%로 과반이 넘게 응답됨

○ '1년으로 연장 운영'은 25.6% '3개월로 축소 운영'은 15.3% '잘 모름'은 5.3%임

[그림12]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기간



응답자 특성별

- '현행 6개월 유지'를 선호하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가 60.7%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40대(56.2%), 50대(53.0%), 60대 이상(51.1%), 20대(50.3%)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1선거구에서 '현행 6개월 유지' 의견이 56.3%로 가장 높긴 했지만 모든 지역에서 50% 넘는 응답을 보임
- '현행 6개월 유지' 의견은 5년 미만 거주층에서 62.0%로 높게 응답됨
- 직업별로는 현장/기능직(61.0%)과 사무직/전문직(55.9%)에서 '현행 6개월 유지' 의견이 다른 직업군보다 다소 높게 조사됨
- '1년 연장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50대(33.8%), 3선거구(28.2%), 자영업/서비스직(31.1%)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3개월로 축소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20대(21.2%), 2선거구(18.0%), 사무직/전문직(18.2%)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요약 및 제언

- 민선 8기 구정 만족층에서도 '현행 6개월 유지' 의견이 56.2%로 높게 응답되었는데 전 연령층, 현장/기술직(61.0%)에서 특히 높음
- 축소하거나 연장 운영을 합하면 40.9%에 달하는데 지역별로 2선거구에서 43.1%로 다소 높게 나타남
- 1년 연장 운영을 선호하는 층은 경제 활동층인 40·50대인데 각각 27.2%, 33.8%의 응답을 보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개선 방안을 확대해야 함

[표10]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기간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현행 6개월이 바람직	1년으로 연장 운영이 바람직	3개월로 축소 운영이 바람직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53.8	25.6	15.3	5.3
성 별	남성	(502)	54.6	26.0	14.3	5.1
	여성	(498)	53.0	25.2	16.3	5.5
연 령	만 19세~29세	(261)	50.3	26.3	21.2	2.2
	30대	(194)	60.7	22.2	16.0	1.1
	40대	(143)	56.2	27.2	16.1	0.5
	50대	(147)	53.0	33.8	8.8	4.4
	60대 이상	(255)	51.1	21.8	12.1	15.0
지 역[12]	1선거구	(272)	56.3	24.8	14.8	4.1
	2선거구	(271)	50.6	25.1	18.0	6.3
	3선거구	(229)	53.5	28.2	13.1	5.3
	4선거구	(228)	54.8	24.6	14.9	5.7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61.0	27.1	8.3	3.6
	자영업/서비스직	(287)	49.8	31.1	14.6	4.5
	사무직/전문직	(326)	55.9	25.5	18.2	0.4
	가정주부	(145)	52.3	24.0	11.1	12.6
	학생	(80)	61.4	16.3	18.4	3.9
	무직/취업준비	(133)	52.8	21.0	13.7	12.4
	기타	(3)	48.5	23.1	28.4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62.0	25.4	11.1	1.6
	5~10년 미만	(165)	54.0	17.6	26.8	1.6
	10~20년 미만	(250)	58.9	25.9	13.4	1.7
	20년 이상	(516)	50.1	28.1	13.1	8.8

12)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12. 쓰레기 배출 시간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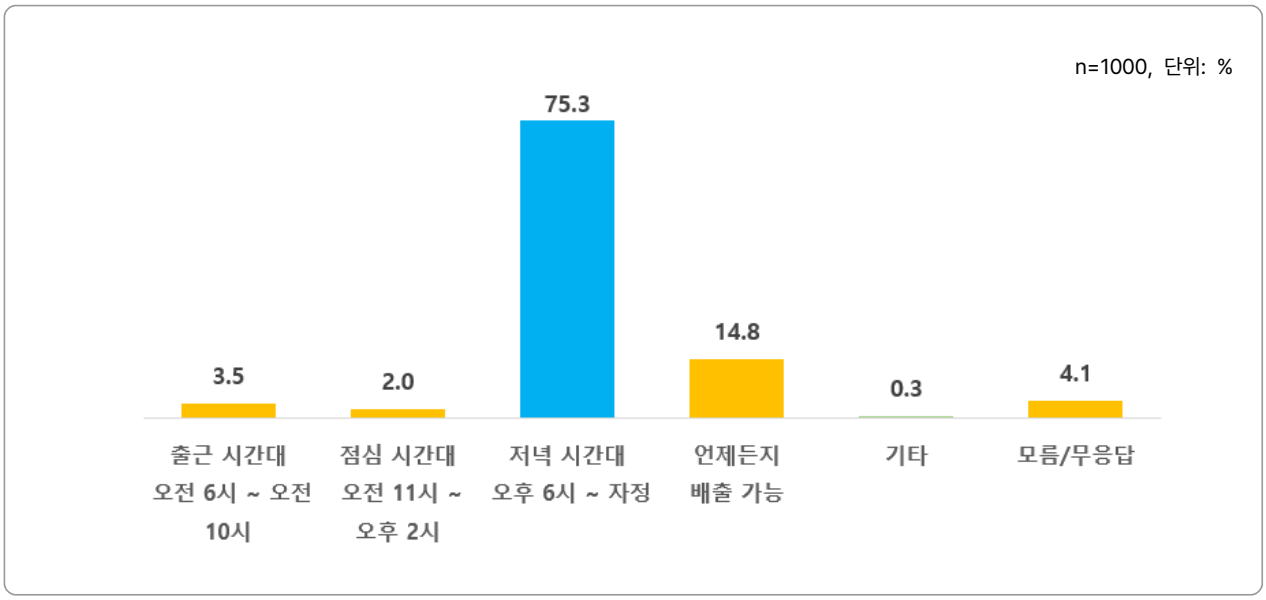
[질문] 관악구 **주거지역의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은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 쓰레기 배출시간 인지도는 '저녁 시간대(오후 6시~자정)'가 75.3% 조사돼 관악구민 10명 중 7명이 저녁시간대 배출 시간을 제대로 알고 있음

○ '언제든지 배출 가능' 의견은 14.8%로 나타났고 '출근 시간대(오전 6시~오전 10시)'가 3.5%, '점심 시간대(오전 11시~오후2시)' 의견은 2.0%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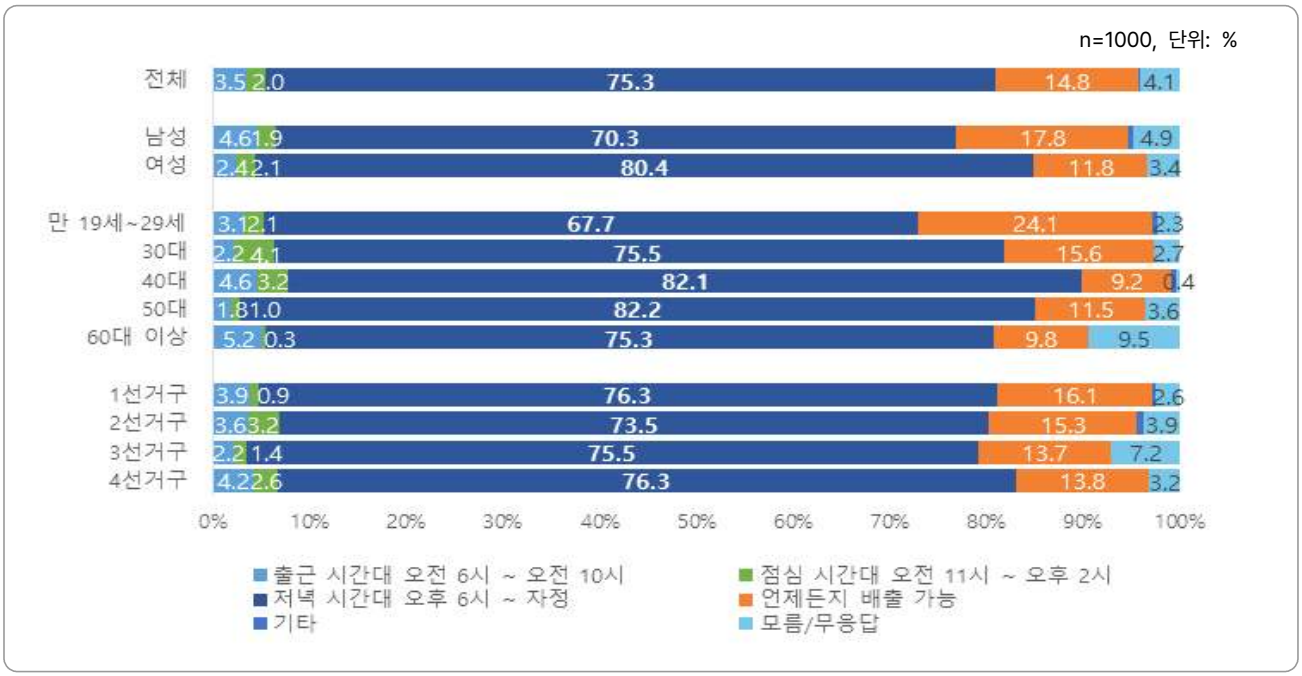
○ '오후 5시'(0.1%), '화요일'(0.2%), '잘 모름'(4.1%) 응답은 소수 의견임

[그림13] 쓰레기 배출 시간 인지도



응답자 특성별	▶ '출근 시간대(오전 6시~오전 10시)'란 응답은 40대(4.6%)와 4선거구(4.2%)에서 있었음 ▶ 10명 중 7명은 배출 시간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데 특히 5년 미만 거주층(78.5%)에서 배출 시간을 제대로 아는 비율이 가장 높음
요약 및 제언	▶ 10명 중 7~8명은 쓰레기 배출 시간을 잘 인지하고 있음 ▶ 하지만 '언제든지 배출 가능하다'는 응답도 14.8%나 되어 20대, 남성층을 대상으로 계도가 필요함

[그림14] 쓰레기 배출 시간 인지도 응답자별 특성



[표12] 쓰레기 배출 시간 인지도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출근 시간대 (오전 6시 ~10시)	점심 시간대 (오전 11시 ~오후 2시)	저녁 시간대 (오후 6시 ~자정)	언제든지 배출 가능	기타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3.5	2.0	75.3	14.8	0.3	4.1
성 별	남성	(502)	4.6	1.9	70.3	17.8	0.4	4.9
	여성	(498)	2.4	2.1	80.4	11.8	0.0	3.4
연 령	만 19세~29세	(261)	3.1	2.1	67.7	24.1	0.6	2.3
	30대	(194)	2.2	4.1	75.5	15.6	0.0	2.7
	40대	(143)	4.6	3.2	82.1	9.2	0.5	0.4
	50대	(147)	1.8	1.0	82.2	11.5	0.0	3.6
	60대 이상	(255)	5.2	0.3	75.3	9.8	0.0	9.5
지 역[13]	1선거구	(272)	3.9	0.9	76.3	16.1	0.3	2.6
	2선거구	(271)	3.6	3.2	73.5	15.3	0.6	3.9
	3선거구	(229)	2.2	1.4	75.5	13.7	0.0	7.2
	4선거구	(228)	4.2	2.6	76.3	13.8	0.0	3.2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0.0	0.0	67.6	23.0	0.0	9.4
	자영업/서비스직	(287)	2.8	1.9	75.4	14.1	0.7	5.0
	사무직/전문직	(326)	3.9	2.8	75.3	17.5	0.0	0.5
	가정주부	(145)	3.6	0.4	81.7	9.0	0.0	5.2
	학생	(80)	1.6	0.0	72.0	20.6	0.0	5.8
	무직/취업준비	(133)	4.9	3.7	72.6	11.3	0.0	7.5
	기타	(3)	23.1	0.0	48.5	0.0	0.0	28.4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1.2	4.8	78.5	15.5	0.0	0.0
	5~10년 미만	(165)	1.1	2.4	72.8	21.5	0.0	2.2
	10~20년 미만	(250)	2.8	2.0	76.7	15.8	0.0	2.8
	20년 이상	(516)	4.9	1.5	75.1	12.1	0.4	6.0

13)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13. 쓰레기 배출 장소 인지도

[질문] 관악구 **주거지역의 생활 쓰레기 배출 장소**는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 쓰레기 배출 장소 인지도는 '내집·내점포 앞'이 89.5% 조사돼 관악구민 10명 중 8명이 쓰레기 배출 장소를 제대로 알고 있었음

○ '주변 전봇대' 의견은 4.8%로 나타났고 '가까운 공터' 2.3%, '대로변' 1.4%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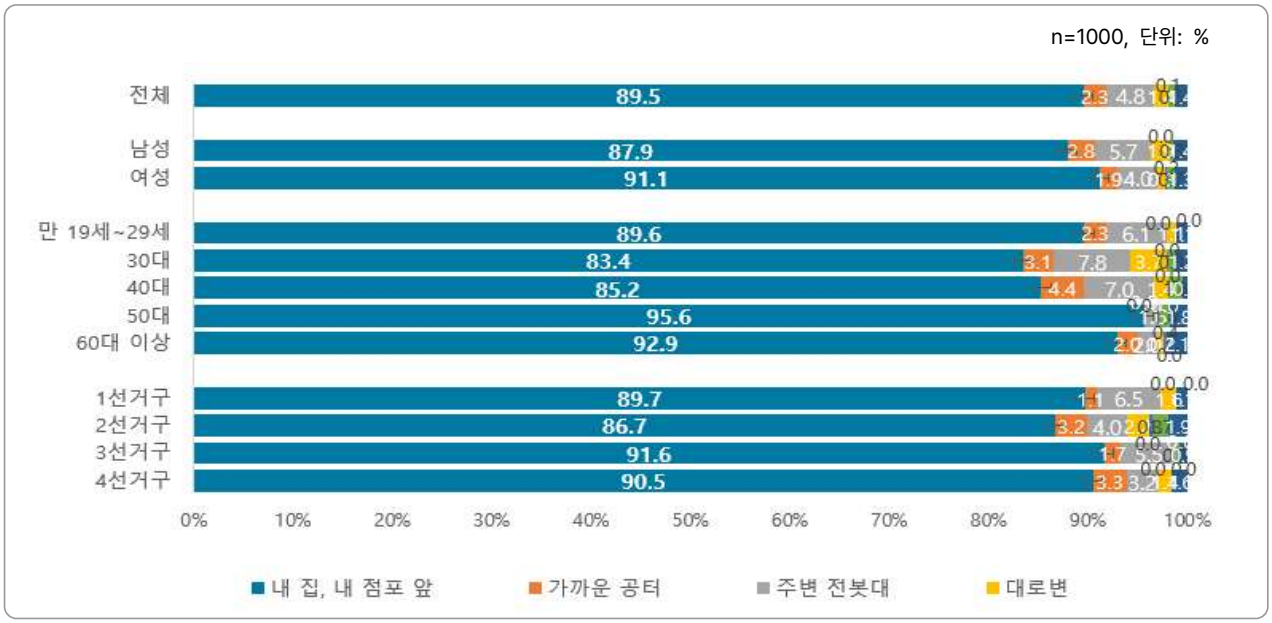
○ '지정 구역'(0.5%), '지하 쓰레기수거장'(0.1%) '잘 모름'(1.4%)은 소수 의견임

○ 쓰레기 배출장소를 잘못 알고 있는 층은 약 10% 정도로 이들에 대한 계도가 필요함

[그림15] 쓰레기 배출 장소 인지도

응답자 특성별	▶ 성별로는 남성(87.9%)보다 여성층(91.1%)에서, 연령별로는 50대(95.6%), 지역별로는 3선거구(91.6%)에서 직업별로는 주부층(95.9%)에서 '내집, 내 점포 앞' 배출 장소를 제대로 알고 있었음
요약 및 제언	▶ 쓰레기 배출 시간과 장소를 제대로 아는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므로 배출 장소에 대한 주변미화(수거 장소 가림막 등)를 통해 정돈된 거리문화 조성에 관심 필요

[그림16] 쓰레기 배출 장소 인지도 응답자별 특성



[표13] 쓰레기 배출 장소 인지도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내 집, 내 점포 앞	주변 전봇대	가까운 공터	대로변	지정구역	지하 쓰레기 수거장	모름/ 무응답
전 체		(1000)	89.5	4.8	2.3	1.4	0.5	0.1	1.4
성 별	남성	(502)	87.9	5.7	2.8	1.9	0.3	0.0	1.4
	여성	(498)	91.1	4.0	1.9	0.8	0.7	0.2	1.3
연 령	만 19세~29세	(261)	89.6	6.1	2.3	1.1	0.0	0.0	1.1
	30대	(194)	83.4	7.8	3.1	3.7	0.8	0.0	1.2
	40대	(143)	85.2	7.0	4.4	1.4	1.6	0.0	0.4
	50대	(147)	95.6	1.6	0.0	0.0	1.0	0.0	1.8
	60대 이상	(255)	92.9	2.0	2.0	0.7	0.0	0.4	2.1
지 역[14]	1선거구	(272)	89.7	6.5	1.1	1.6	0.0	0.0	1.1
	2선거구	(271)	86.7	4.0	3.2	2.2	1.7	0.3	1.9
	3선거구	(229)	91.6	5.5	1.7	0.0	0.3	0.0	0.9
	4선거구	(228)	90.5	3.2	3.3	1.4	0.0	0.0	1.6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87.9	8.1	0.0	4.0	0.0	0.0	0.0
	자영업/서비스직	(287)	91.8	2.8	1.5	2.2	0.0	0.0	1.8
	사무직/전문직	(326)	85.1	8.1	3.1	1.6	1.0	0.0	1.2
	가정주부	(145)	95.9	0.0	1.1	0.0	0.5	0.6	1.9
	학생	(80)	91.3	8.7	0.0	0.0	0.0	0.0	0.0
	무직/취업준비	(133)	88.6	3.1	4.9	0.8	1.0	0.0	1.5
	기타	(3)	46.5	25.2	28.4	0.0	0.0	0.0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84.4	7.1	2.0	2.2	2.1	0.0	2.2
	5~10년 미만	(165)	83.3	9.8	1.4	3.9	0.0	0.0	1.6
	10~20년 미만	(250)	90.1	5.5	2.7	0.4	0.0	0.0	1.2
	20년 이상	(516)	91.9	2.6	2.5	0.9	0.7	0.2	1.3

14)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14.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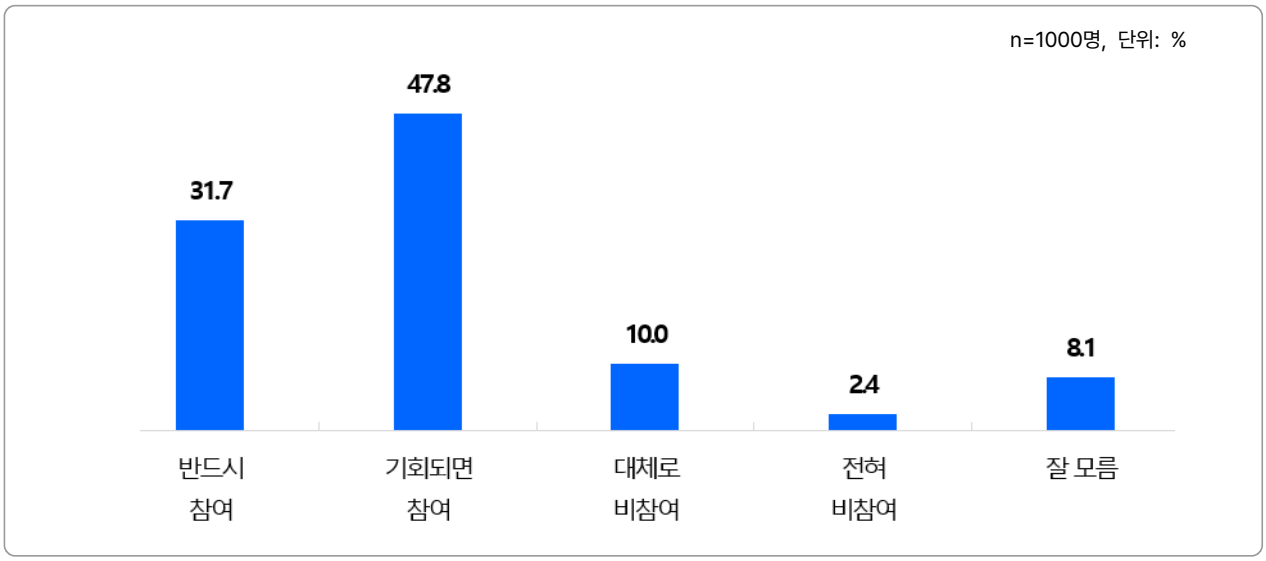
[질문] 관악구는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참여' 응답은 79.5%, '비참여' 12.3% '잘 모름' 8.1%임

○ '반드시 참여' 31.7%, '기회 되면 참여'는 47.8%, '대체로 비참여'는 10.0%, '전혀 비참여' 2.4%, '잘 모름' 8.1%임

○ 생활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 실천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와 호응도가 10명 중 8명에 달할 정도로 좋기 때문에 구정 캠페인화하는 것도 검토해볼 만함

[그림17]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참여도



응답자 특성별	▶ '반드시 참여'는 연령별로는 50대(45.3%)에서 가장 높고 지역별로는 3선거구(36.6%), 직업별로는 가정주부(39.3%)와 현장/기술직(39.1%)에서 높음 ▶ '불참' 의견은 연령별로는 60대(5.1%), 지역별로는 4선거구(2.9%), 직업별로는 현장/기능직(7.0%)에서 응답됨
요약 및 제언	▶ 구글트렌드가 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언급량 많은 키워드로 '기후 위기'가 꼽힐 정도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도가 매년 높아지는 분위기임 ▶ 기후변화를 중심으로 한 지역민 실천캠페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고 2022년 하반기부터 동별로 활동을 시작한 '자원순환동아리'와 쓰레기 문제나 폐자원 순환(의류, 가전제품 등)을 주제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환경 관련 기업과 MOU 검토

[표14]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실천 프로그램 참여도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반드시 참여하겠다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	대체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전 체		(1000)	31.7	47.8	10.0	2.4	8.1
성 별	남성	(502)	27.2	48.9	11.2	2.5	10.2
	여성	(498)	36.2	46.8	8.7	2.2	6.0
연 령	만 19세~29세	(261)	25.9	49.9	18.3	0.9	5.0
	30대	(194)	28.7	51.5	7.9	2.9	8.9
	40대	(143)	33.8	48.2	4.8	1.9	11.4
	50대	(147)	45.3	43.3	6.1	0.0	5.2
	60대 이상	(255)	30.8	45.4	8.2	5.1	10.6
지 역[15]	1선거구	(272)	27.5	51.4	12.6	2.1	6.4
	2선거구	(271)	30.9	47.8	10.9	2.4	8.0
	3선거구	(229)	36.6	46.4	6.2	2.1	8.7
	4선거구	(228)	32.6	45.2	9.5	2.9	9.7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39.1	23.3	14.8	7.0	15.8
	자영업/서비스직	(287)	33.4	47.4	11.5	2.9	4.9
	사무직/전문직	(326)	28.9	54.0	7.8	1.7	7.7
	가정주부	(145)	39.3	39.6	6.6	2.6	11.9
	학생	(80)	32.3	48.5	15.7	0.0	3.5
	무직/취업준비	(133)	24.8	46.8	11.7	3.2	13.5
	기타	(3)	28.4	71.6	0.0	0.0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20.7	56.6	17.6	1.2	3.9
	5~10년 미만	(165)	26.2	51.6	10.9	2.8	8.4
	10~20년 미만	(250)	35.0	42.9	12.3	1.3	8.5
	20년 이상	(516)	33.3	47.9	7.5	2.9	8.4

15)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15. 민선 8기 역점 분야

[질문]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관악구가 가장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로는 '경제·일자리'가 42.2%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복지·보건' 14.4%, '청년·1인가구' 12.5%, '환경·공원녹지' 11.7%, '문화·교육' 9.4% , '안전·교통' 8.5%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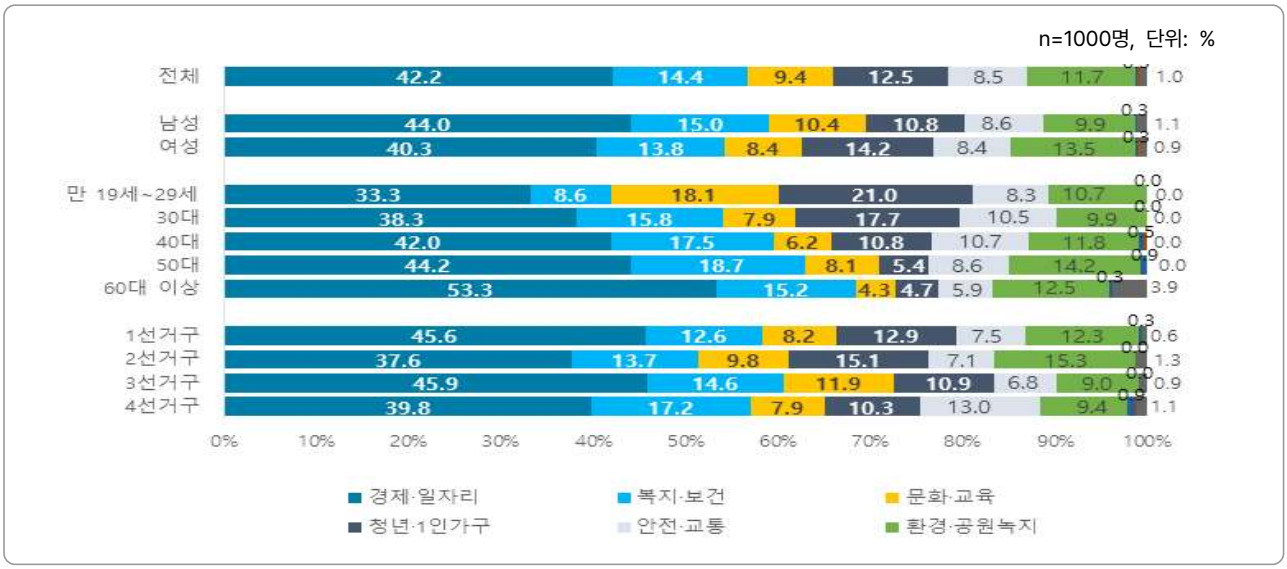
○ '고시촌 활성화', '도서관', '문화안전' 등 선호가 1%가 안 되는 소수 의견이고 잘 모름은 1.0%임

○ 내년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이 부정적이고 금리, 환율, 유가 등 3고 시대를 맞아 관악구민들의 마음은 경제와 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18] 민선 8기 역점 분야

응답자 특성별	▶ 성별로 보면 남녀 모두 '경제·일자리'가 40.3%~44.0%로 높게 응답됨 ▶ 거주기간별로 보면 5년 미만 거주층에선 '경제·일자리'(28.9%)와 '청년·1인가구 지원'(25.0%)이 엇비슷한 비율로 응답됨
요약 및 제언	▶ '경제·일자리'가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높게 응답되었는데,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청년·1인가구 지원'(21.0%)이 높아 생활비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임 ▶ 수요자 요구에 맞춰 구의 지원 항목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음

[그림19] 민선 8기 역점 분야 응답자별 특성



[표15] 민선 8기 역점 분야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경제·일자리	복지·보건	청년·1인가구	환경·공원녹지	문화·교육	안전·교통	기 타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42.2	14.4	12.5	11.7	9.4	8.5	0.3	0.1	1.0
성 별	남성	(502)	44.0	15.0	10.8	9.9	10.4	8.6	0.3	0.0	1.1
	여성	(498)	40.3	13.8	14.2	13.5	8.4	8.4	0.3	0.1	0.9
연 령	만 19세~29세	(261)	33.3	8.6	21.0	10.7	18.1	8.3	0.0	0.0	0.0
	30대	(194)	38.3	15.8	17.7	9.9	7.9	10.5	0.0	0.0	0.0
	40대	(143)	42.0	17.5	10.8	11.8	6.2	10.7	0.5	0.5	0.0
	50대	(147)	44.2	18.7	5.4	14.2	8.1	8.6	0.9	0.0	0.0
	60대 이상	(255)	53.3	15.2	4.7	12.5	4.3	5.9	0.3	0.0	3.9
지 역[16]	1선거구	(272)	45.6	12.6	12.9	12.3	8.2	7.5	0.3	0.0	0.6
	2선거구	(271)	37.6	13.7	15.1	15.3	9.8	7.1	0.0	0.0	1.3
	3선거구	(229)	45.9	14.6	10.9	9.0	11.9	6.8	0.0	0.0	0.9
	4선거구	(228)	39.8	17.2	10.3	9.4	7.9	13.0	0.8	0.3	1.1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46.1	18.2	14.3	8.9	0.0	12.5	0.0	0.0	0.0
	자영업/서비스직	(287)	47.6	12.8	12.6	12.9	6.4	7.7	0.0	0.0	0.0
	사무직/전문직	(326)	35.6	16.9	17.6	12.0	9.3	7.9	0.6	0.0	0.0
	가정주부	(145)	44.2	16.5	3.3	13.3	8.4	10.7	0.0	0.4	3.2
	학생	(80)	33.9	2.8	19.0	6.7	26.2	11.3	0.0	0.0	0.0
	무직/취업준비	(133)	48.3	15.7	5.5	9.8	9.3	6.8	0.6	0.0	4.0
	기타	(3)	48.5	23.1	0.0	28.4	0.0	0.0	0.0	0.0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28.9	11.3	25.0	14.7	12.0	8.0	0.0	0.0	0.0
	5~10년 미만	(165)	31.8	12.3	24.7	9.6	11.3	10.3	0.0	0.0	0.0
	10~20년 미만	(250)	44.1	11.5	11.6	12.0	12.8	6.9	0.0	0.3	0.7
	20년 이상	(516)	46.4	16.9	7.3	11.8	6.8	8.7	0.5	0.0	1.6

16)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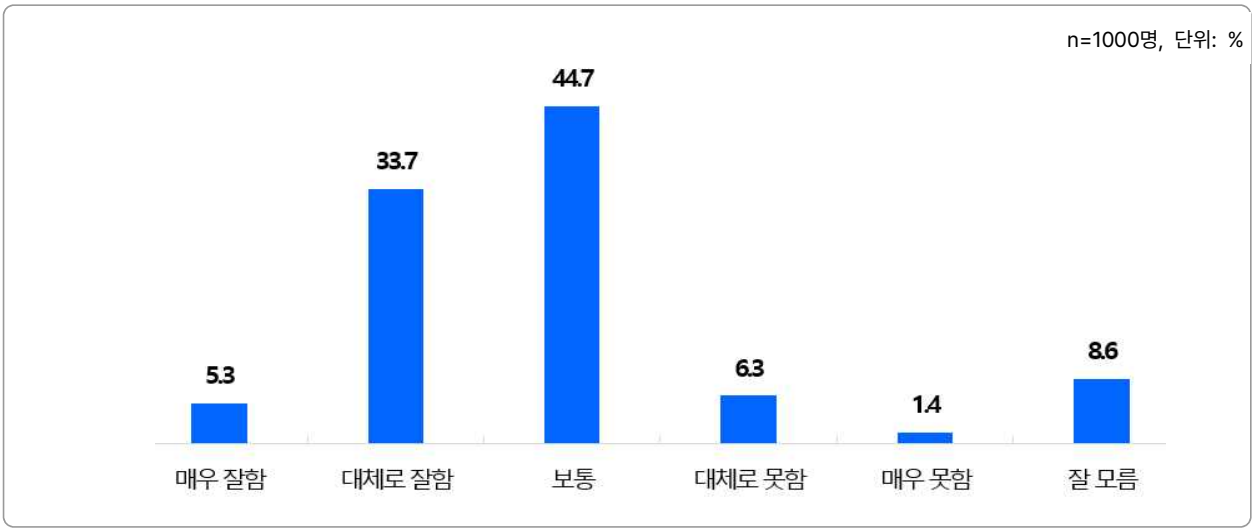
16. 민선 8기 구정 만족도

[질문]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매우 잘함' 5.3%, '대체로 잘함' 33.7%, '보통' 44.7%, '대체로 못함' 6.3% '매우 못함 1.4% '잘 모름' 8.6%임

○ 민선 8기 구정 만족도는 **5점 기준으로 환산할 시 3.38점임**

[그림20] 민선 8기 구정 만족도



응답자 특성별	▶ '매우 잘한다와 대체로 잘한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50대(45.4%)와 20대(41.9%)에서 높고 지역별로는 4선거구(41.4%), 직업별로는 학생(48.5%)에서 높음 ▶ '보통' 의견은 전체 44.7%로 잘함 38.9%, '잘 못함' 7.8%보다 높은 응답을 보임 ▶ '대체로 못한다와 매우 못한다'의 합산 의견은 연령별로는 30대(12.7%), 지역별로는 1·3선거구(각각 9.3%), 직업별로는 사무직/전문직(11.2%)에서 응답됨 ▶ 학생층에서 구정 만족도가 48.5%로 높게 나타나 관악구가 추진하는 청년정책에 대한 긍정적 호응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8월에 있었던 수해 재난대응 긍정평가가 56.2%로 과반이 넘게 나타나 이를 실질적인 구정 만족도 평가로 봐야 할 것임
요약 및 제언	▶ 조사 시점은 민선 8기가 시작한 지 6개월여가 지난 시기여서 구정 방향성 등이 아직 지역민에게 충분히 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망적 태도가 많은 것으로 추정됨 ▶ 민선8기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시기임을 고려할 때, '대체로 못함'과 '매우 못함'으로 응답한 비율이 7.7%로 조사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며, 이는 구정운영에 대해 비호감적 요소가 현저히 적다는 의미로 해석됨

[표16] 민선 8기 구정 만족도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못하고 있다	매우 못하고 있다	잘 모르겠다	점수 기준 5점 환산
전 체		(1000)	5.3	33.7	44.7	6.3	1.4	8.6	(3.38)
성 별	남성	(502)	5.6	34.9	44.0	6.9	1.1	7.4	(3.40)
	여성	(498)	4.9	32.4	45.3	5.7	1.7	9.9	(3.37)
연 령	만 19세~29세	(261)	3.0	38.9	42.9	6.8	0.0	8.4	(3.41)
	30대	(194)	2.8	32.2	47.8	10.0	2.7	4.5	(3.24)
	40대	(143)	5.0	26.5	49.2	6.1	5.2	7.9	(3.22)
	50대	(147)	9.5	35.9	43.1	4.3	0.0	7.2	(3.55)
	60대 이상	(255)	7.1	32.2	42.5	4.4	0.7	13.2	(3.47)
지 역[17]	1선거구	(272)	4.8	31.9	47.1	7.8	1.5	7.1	(3.33)
	2선거구	(271)	4.4	33.1	46.5	4.2	1.8	10.1	(3.38)
	3선거구	(229)	4.8	36.1	41.6	8.1	1.2	8.1	(3.38)
	4선거구	(228)	7.3	34.1	42.8	5.4	1.2	9.3	(3.45)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0.0	36.5	43.4	10.9	0.0	9.2	(3.28)
	자영업/서비스직	(287)	6.4	33.4	47.2	7.2	1.1	4.7	(3.38)
	사무직/전문직	(326)	4.1	30.7	46.1	8.7	2.5	7.9	(3.27)
	가정주부	(145)	5.2	36.0	44.3	1.7	0.6	12.3	(3.50)
	학생	(80)	2.8	45.7	41.1	0.0	0.0	10.4	(3.57)
	무직/취업준비	(133)	8.3	30.8	38.4	6.8	1.6	14.1	(3.43)
	기타	(3)	0.0	51.5	48.5	0.0	0.0	0.0	(3.51)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7.5	37.6	39.7	9.8	2.1	3.2	(3.40)
	5~10년 미만	(165)	0.4	27.4	47.4	11.4	2.0	11.3	(3.14)
	10~20년 미만	(250)	6.1	39.0	41.4	3.7	1.6	8.2	(3.48)
	20년 이상	(516)	6.1	32.6	46.1	5.5	1.1	8.7	(3.41)

17)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17. 관악구 거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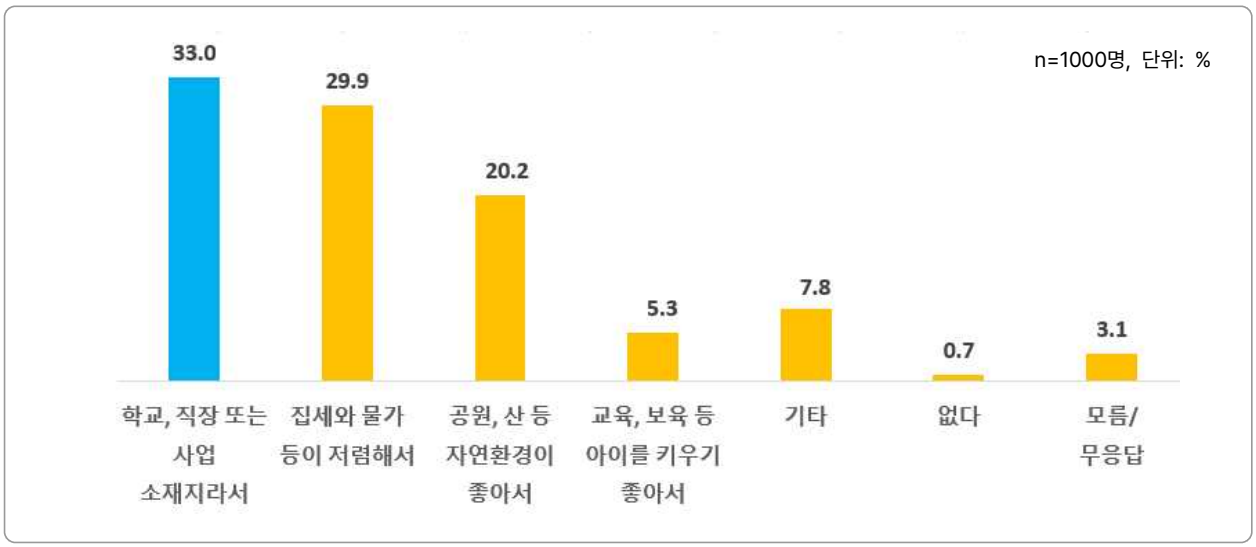
[질문] 관악구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 '학교와 직장 소재지라서'가 33.0%로 1순위 응답되었고 다음은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29.9%, '공원, 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 20.2%, '보육·교육 등 아이 키우기 좋아서' 5.3%, 순으로 응답됨

○ '교통이 좋아서', '자녀/부모님과 함께 살아서', '형편에 맞아서', '살기 편해서', '재개발해서', '주변 사람들이 좋아서' 등 기타 의견은 7.8%였고 '없다' 0.7%, '잘 모름'은 3.1%임

○ 관악산과 도림천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와 '생활비/물가가 저렴해서'라는 응답이 50.1%로 절반에 달해 살기에 좋다는 인식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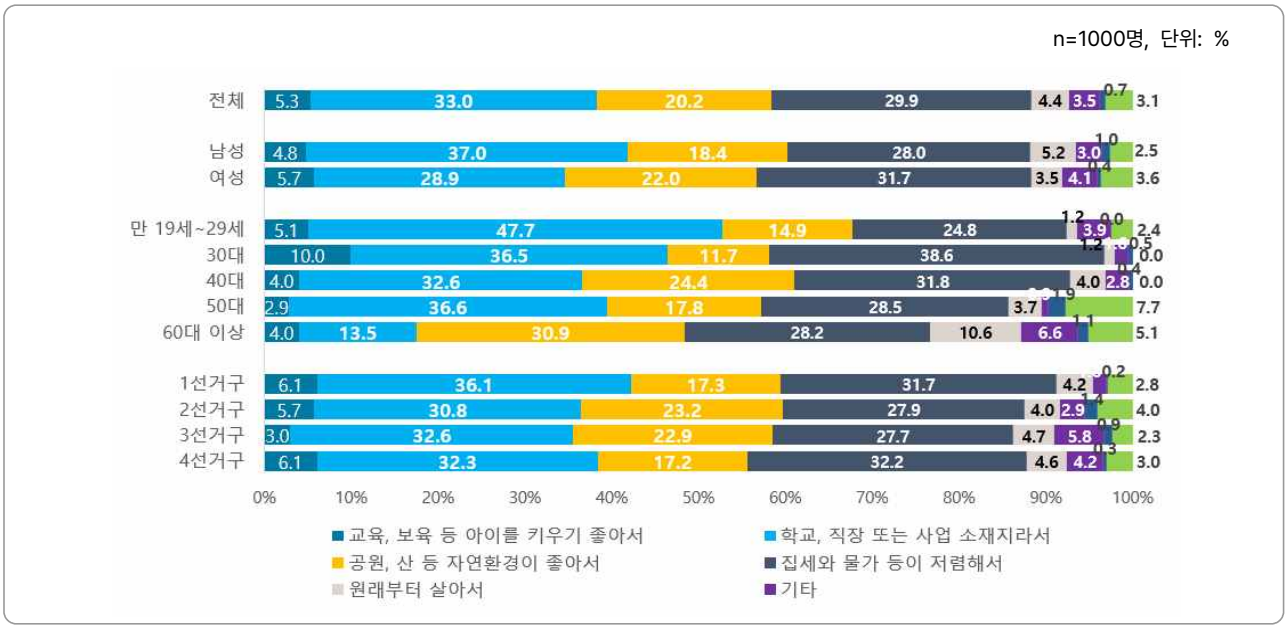
[그림21] 관악구 거주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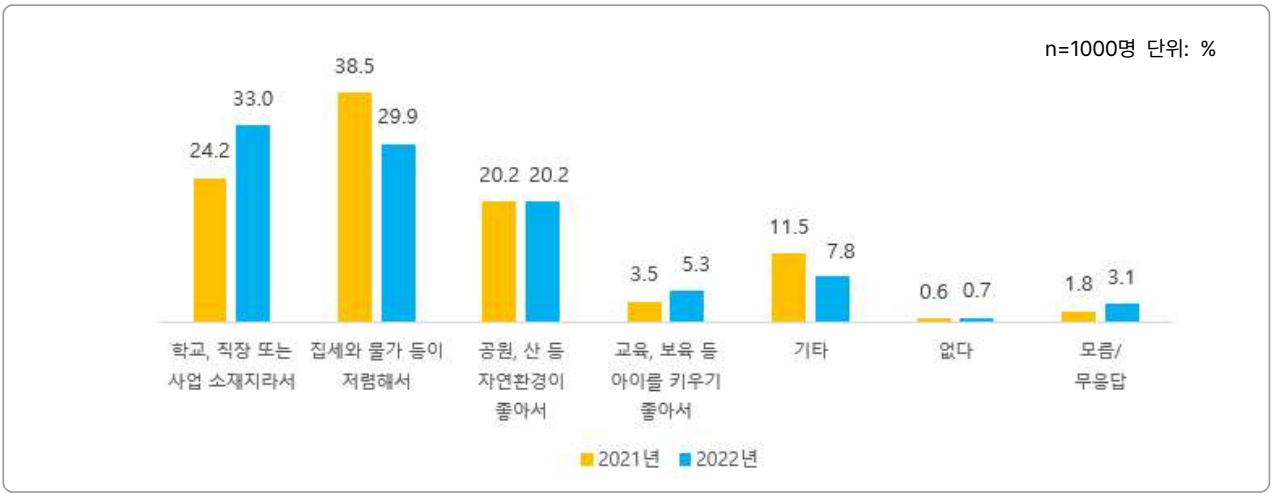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학교·직장 소재지여서'라는 응답은 30대와 60대를 제외하고 모든 연령에서 1순위 응답하였고 전체 지역에서는 모두 1순위로 응답함
-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는 응답은 30대에서 38.6%로 높고 60대는 '자연환경이 좋아서' 30.9%를 응답함
- 성별로는 여성층에서는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가 31.7%로 가장 높게 응답되었고, 남성층에서는 '학교와 직장 소재지라서'가 37.0%로 높게 응답됨
- 관악구 거주 이유로 '학교 직장 소재지'와 '집세 물가 등이 저렴해서'가 주된 사유로 파악됨

[그림22] 관악구 거주 이유 응답자별 특성



[그림23] 관악구 거주 이유 연도별 비교



(n=1000명, 단위:%)

관악구 거주 이유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공원, 산 등 자연 환경이 좋아서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기타	없다	모름/ 무응답
2022년	33.0	29.9	20.2	5.3	7.8	0.7	3.1
2021년	24.2	38.5	20.2	3.5	11.5	0.6	1.8

연도별 비교

- 전년도와 비교시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라는 이유가 24.2%에서 33.0%로 8.8%p 상승하였고, 지난해 가장 높았던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응답은 38.5%에서 29.9%로 8.6%p 하락함
- '공원, 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는 지난 해와 별 차이 없이 엇비슷하게 응답되었고 '교육, 보육 등 아이들 키우기 좋아서'가 3.5%에서 5.3%로 소폭 상승함

요약 및 제언

- 2021년 대비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의견이 8.6%p 하락해 1년 사이에 소비자 물가와 집세 등에 대한 상승 체감이 높아져, 전반적으로 생활하기가 힘들다고 느끼는 점에 주목해야 함
- 관악구가 20·30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인데도 '교육·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가 5.3% 응답에 그쳐 20·30세대의 보육과 교육 선호요인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을 강화해야 함

[표17] 관악구 거주 이유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공원, 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33.0	29.9	20.2	5.3	7.8	0.7	3.1
성 별	남성	(502)	37.0	28.0	18.4	4.8	8.2	1.0	2.5
	여성	(498)	28.9	31.7	22.0	5.7	7.7	0.4	3.6
연 령	만 19세~29세	(261)	47.7	24.8	14.9	5.1	5.1	0	2.4
	30대	(194)	36.5	38.6	11.7	10.0	2.8	0.5	0.0
	40대	(143)	32.6	31.8	24.4	4.0	6.8	0.4	0.0
	50대	(147)	36.6	28.5	17.8	2.9	4.6	1.9	7.7
	60대 이상	(255)	13.5	28.2	30.9	4.0	17.1	1.1	5.1
지 역[18]	1선거구	(272)	36.1	31.7	17.3	6.1	5.9	0.2	2.8
	2선거구	(271)	30.8	27.9	23.2	5.7	6.9	1.4	4.0
	3선거구	(229)	32.6	27.7	22.9	3.0	10.5	0.9	2.3
	4선거구	(228)	32.3	32.2	17.2	6.1	8.8	0.3	3.0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16.8	58.8	14.7	2.8	3.2	3.8	0.0
	자영업/서비스직	(287)	47.4	25.4	14.6	3.5	5.1	0.3	3.8
	사무직/전문직	(326)	37.8	33.5	15.4	7.5	2.8	1.0	1.9
	가정주부	(145)	9.5	33.6	31.6	5.3	16.1	0.0	3.9
	학생	(80)	49.6	14.9	14.2	9.4	9.0	0.0	2.8
	무직/취업준비	(133)	9.2	29.7	36.5	1.8	16.9	1.5	4.4
	기타	(3)	25.2	23.1	0.0	0.0	51.8	0.0	0.0
거주 기간	5년 미만	(69)	44.7	40.7	12.8	0.0	0.0	0.0	1.8
	5~10년 미만	(165)	37.0	37.1	14.3	8.1	0.9	0.3	2.3
	10~20년 미만	(250)	43.0	23.4	17.0	8.0	7.2	0.0	1.3
	20년 이상	(516)	25.3	29.2	24.6	3.8	11.4	1.3	4.4

18)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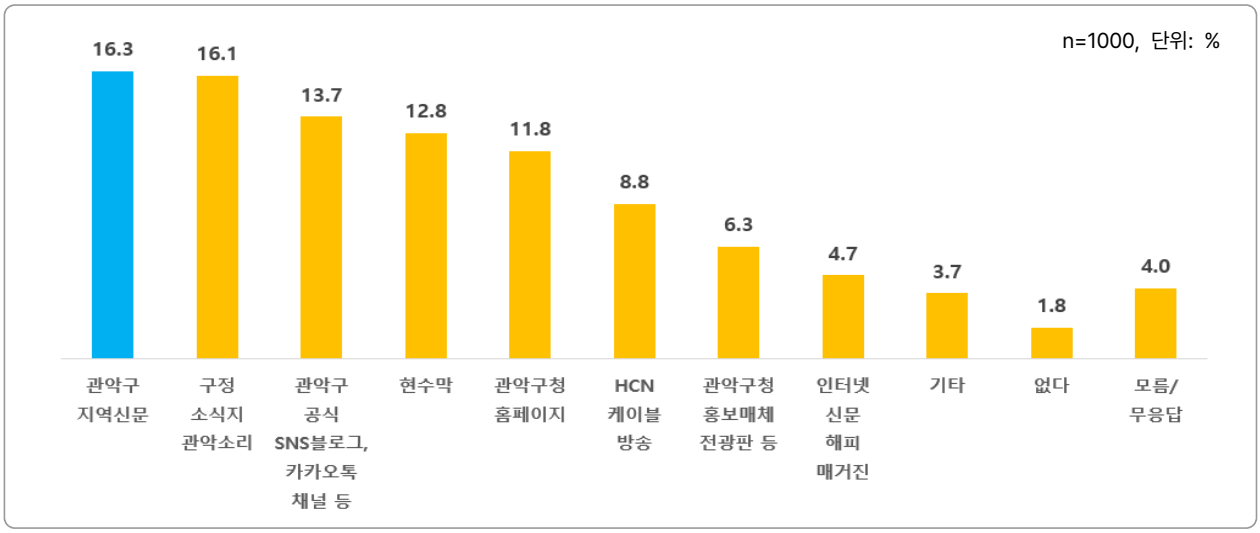
18. 관악구 구정 소식 인지 경로

[질문] 관악구의 주요 소식을 얻는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 '관악구 지역신문'(16.3%)과 '구정 소식지 관악소리'(16.1%)가 엇비슷한 응답률로 첫번째로 꼽혔고 다음은 '관악구 공식 SNS'(13.7%), '현수막'(12.8%), '관악구청 홈페이지'(11.8%), 'HCN케이블방송'(8.8%), '관악구청 전광판 등 홍보매체'(6.3%), '인터넷신문해피매거진'(4.7%)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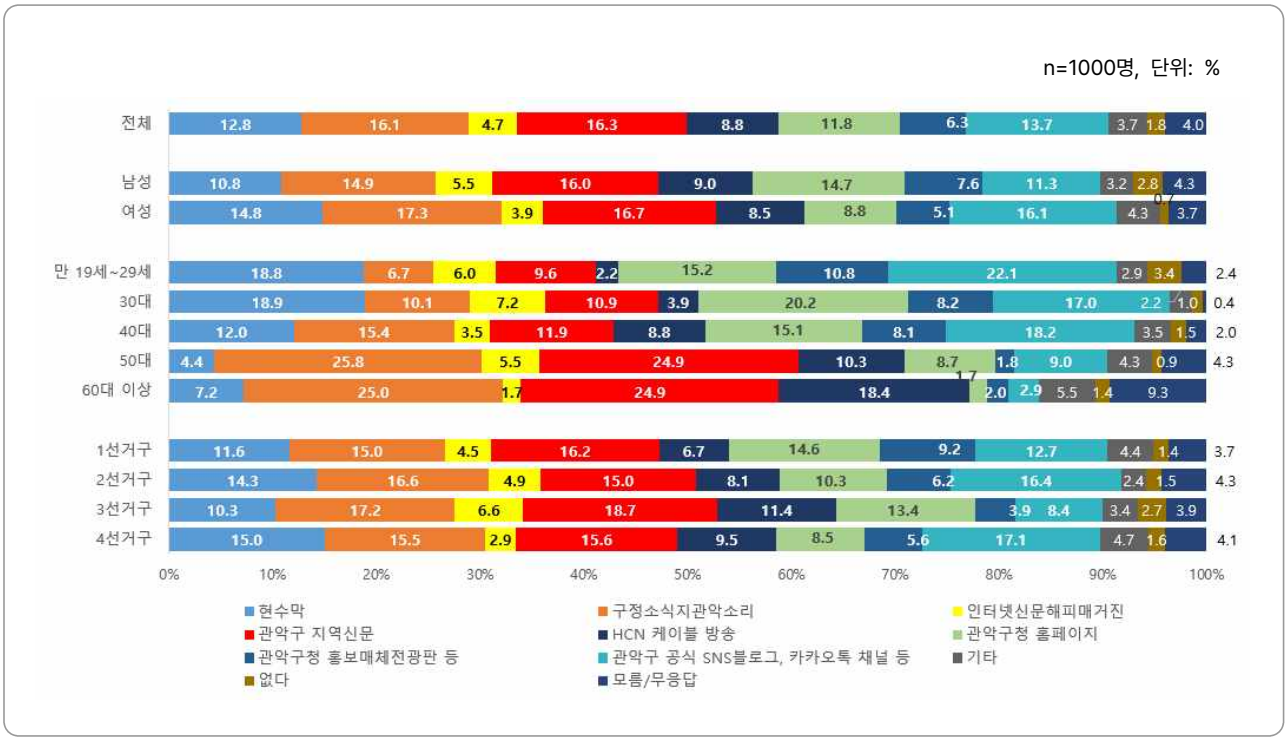
○ 기타는 3.7%, 없다는 1.8%, 잘 모름은 4.0%로 응답됨

[그림24] 관악구 구정 소식 인지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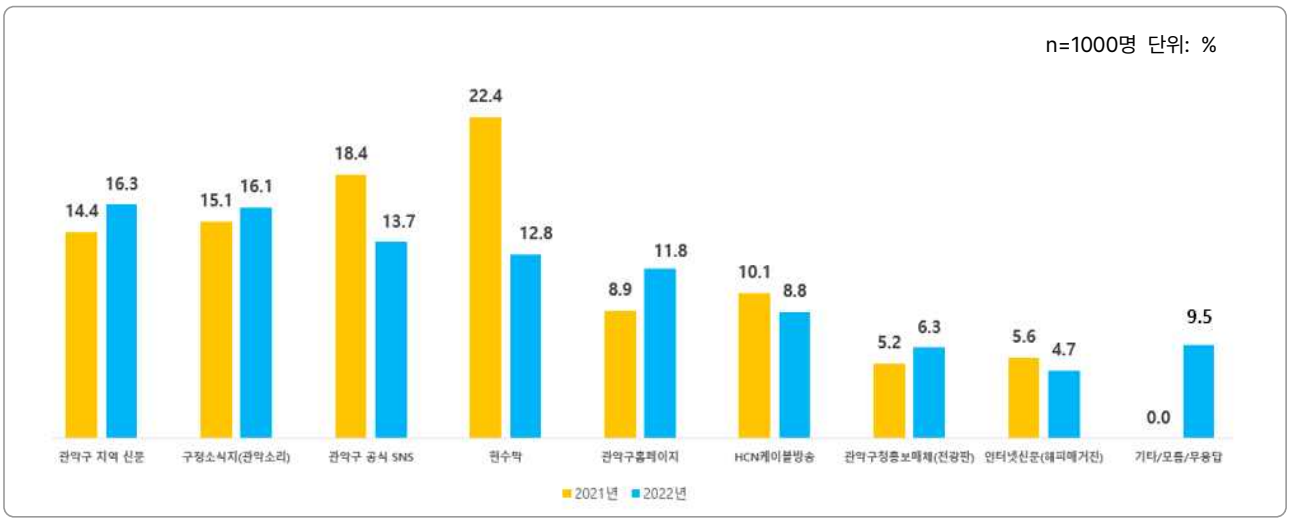


응답자 특성별

- 연령별로 보면 20대(22.1%)와 40대(18.2%)는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채널 등)'을 1순위로 응답함
- 30대는 관악구청 홈페이지(20.2%)를, 50대와 60대에서는 구정 소식지인 '관악소리'를 본다는 응답이 각각 25.8%, 25.0%로 동일 연령대 내에서 높게 응답됨
- 관악구 지역신문과 구정 소식과 같은 인쇄매체는 50·60대 이상 중장년층과 주부층, 현장직/기능직에서 높은 인지 경로로 선택됨
- 60대 이상층에선 HCN케이블방송 이용 응답이 18.4%로 높게 응답됨
- 관악구의 공식 SNS 매체에 대한 이용률이 지난해 대비 다소 줄었지만 관악구청 홈페이지 이용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함
- 지역민들이 관악구 소식을 주로 얻는 경로로 관악구가 운영하는 공식 SNS, 홈페이지, 구정 소식지, 전광판 등이 많이 언급되고 있어 구정 소식과 정책을 알리는 기본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26] 관악구 구정 소식 인지 경로 연도별 비교



(n=1000명, 단위:%)

관악구 구정 소식 인지 경로	관악구 지역 신문	구정 소식지 (관악 소리)	관악구 공식 SNS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현수막	관악구청 홈페이지	HCN 케이블 방송	관악구청 홍보매체 (전광판 등)	인터넷 신문 (해피 매거진)	기타 모름/무 응답
2022년	16.3	16.1	13.7	12.8	11.8	8.8	6.3	4.7	9.5
2021년	14.4	15.1	18.4	22.4	8.9	10.1	5.2	5.6	0.0

연도별 비교	▶ 2021년도 대비 구정 소식지(관악소리)와 관악 지역신문, 관악구청 홈페이지, 관악구청 홍보매체(전광판 등)를 통한 구정 소식 인지 경로 응답 비율이 높아짐 ▶ 반면에 현수막,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HCN 케이블 방송, 인터넷신문(해피매거진) 응답은 전년도 대비해 응답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현수막 이용률 응답이 지난해 대비 큰 폭 하락한 반면, 구청 홈페이지, 관악구청 홍보매체(전광판 등)는 소폭 상승해 디지털 기반 미디어로 이용 변화를 보여줌
요약 및 제언	▶ 관악구의 구정을 홍보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는 확보되어 있으므로 20·30대 취향을 고려한 숏폼 영상 중심의 정책 홍보 강화 필요 ▶ 구정에서 보유한 자체 매체 이용률이 상승한 것은 실용적인 구정 정보를 맘카페 등 커뮤니티로 확산과 전파가 활성화되면서 구정 매체의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됨

[표18] 관악구 구정 소식 인지 경로

구 분 (단위:%)		사례수 (명)	관악구 지역신문	구정소식지(관악소리)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현수막	관악구청 홈페이지	HCN 케이블 방송	관악구청 홍보매체 (전광판 등)	인터넷 신문 (해피매거진)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전 체		(1000)	16.3	16.1	13.7	12.8	11.8	8.8	6.3	4.7	3.7	1.8	4.0
성 별	남성	(502)	16.0	14.9	11.3	10.8	14.7	9.0	7.6	5.5	3.0	2.8	4.3
	여성	(498)	16.7	17.3	16.1	14.8	8.8	8.5	5.1	3.9	4.3	0.7	3.7
연 령	만 19세~29세	(261)	9.6	6.7	22.1	18.8	15.2	2.2	10.8	6.0	2.9	3.4	2.4
	30대	(194)	10.9	10.1	17.0	18.9	20.2	3.9	8.2	7.2	2.2	1.0	0.4
	40대	(143)	11.9	15.4	18.2	12.0	15.1	8.8	8.1	3.5	3.0	1.5	2.0
	50대	(147)	24.9	25.8	9.0	4.4	8.7	10.3	1.8	5.5	4.4	0.9	4.3
	60대 이상	(255)	24.9	25.0	2.9	7.2	1.7	18.4	2.0	1.7	5.4	1.4	9.3
지 역[19]	1선거구	(272)	16.2	15.0	12.7	11.6	14.6	6.7	9.2	4.5	4.4	1.4	3.7
	2선거구	(271)	15.0	16.6	16.4	14.3	10.3	8.1	6.2	4.9	2.5	1.5	4.3
	3선거구	(229)	18.7	17.2	8.4	10.3	13.4	11.4	3.9	6.6	3.0	2.7	3.9
	4선거구	(228)	15.6	15.5	17.1	15.0	8.5	9.5	5.6	2.9	4.7	1.6	4.1
직 업	현장직/기능직	(27)	19.8	27.3	11.9	13.2	0.0	15.4	9.2	0.0	0.0	3.2	0.0
	자영업/서비스직	(287)	19.2	17.7	10.3	10.4	13.5	9.2	2.6	6.5	6.0	1.6	2.8
	사무직/전문직	(326)	10.3	10.1	22.2	16.2	17.5	3.3	11.4	5.4	1.5	0.7	1.4
	가정주부	(145)	24.6	25.2	6.7	7.0	4.6	14.1	2.1	0.0	5.6	1.3	8.9
	학생	(80)	7.5	2.8	25.8	18.9	7.8	7.3	9.9	5.2	3.9	5.1	5.9
	무직/취업준비	(133)	20.9	22.7	1.5	11.7	6.1	14.7	4.2	4.9	2.7	3.1	7.4
	기타	(3)	0.0	23.1	0.0	25.2	23.4	28.4	0.0	0.0	0.0	0.0	0.0

19) 지역은 관악구를 광역선거구 기준으로 구분한 것임 [제1선거구] 보라매동, 은천동, 중앙동, 청룡동, 신림동 [제2선거구] 성현동, 청림동, 행운동, 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 [제3선거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난곡동, 난향동 [제4선거구] 서원동, 신원동, 서림동, 삼성동, 대학동임

제4장 관악구 청소년정책 FGI조사 결과

Ⅰ. 청소년정책 FGI 조사 개요

1. 참석자 모집 방법

관악청소년상담센터 등 청소년정책 기관 실무자 추천을 통해 1차 참석학생 모집 후 참석 의향이 있는 주변인을 추천하는 스노우볼링(snow bolling) 방식으로 진행함

2. 좌담회 일시 장소

[1그룹] 일시 : 2022년 12월 3일 13시 장소 : 싱글벙글교육센터
[2그룹] 일시 : 2022년 12월 7일 16시 장소 : 모임공간 토즈
[3그룹] 일시 : 2022년 12월 7일 18시 장소 : 중식당

1그룹	이름	연령대	거주지	2그룹	이름	연령대	거주지
1	황 ○ ○	중2	신사동	1	윤 ○ ○	고3	은천동
2	곽 ○ ○	중3	서원동	2	고 ○ ○	고3	신림동
3	홍 ○ ○	고2	보라매동	3	강 ○ ○	대학생	신사동
4	이 ○ ○	고2	보라매동	4	강 ○ ○	대학생	신사동
5	황 ○ ○	고2	인헌동	5	윤 ○ ○	대학생	미성동
6	박 ○ ○	고3	인헌동	6	윤 ○ ○	대학생	미성동
7	이 ○ ○	고3	은천동	7	정 ○ ○	대학생	삼성동
8	곽 ○ ○	고3	봉천동				

3그룹 참석자	관악구청소년지원센터,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악청소년센터, 나눔과배움 사회적협동조합 실무자 총 4인

3. 좌담회 주요 내용

-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장래 희망을 위해 준비하는 것
- 관악구 청소년정책 참여 경험 및 평가
- 관악구 꿈나래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 관악구 청소년정책 추진 관련 제안하고 싶은 내용

II. 청소년 좌담회 결과

1) 청소년들의 관심사와 장래희망 준비 정도

【좌담회 발언 스크립트】

- "요즘 관심사는 개발과 취업입니다. 코딩하는 것. 자기 계발. 취업은 개발자쪽으로 하고 싶어요"
- "23세라 취업이나 진로에 관심이 많고 미술, 방송 등 문화예술에도 관심 있어요"
- "마케터로 진학을 계획하고 있어요. 과를 빅데이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관심사는 대학 진학과 경제입니다. 구체적인 장래 희망을 정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어요"
- "클라이밍 하고 있고 체육학과라서 운동쪽으로 장래를 결정하려고 해요"
- "관심사는 학업이랑 소설 읽는 걸 좋아하고 심리학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래 희망을 위해 학업 성적을 올리는 것과 희망 진로는 상담이라 관심사를 탐색하고 있어요"
- "저는 애니메이션쪽. 진로를 정해 놓기는 했지만 학교에서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서 고생을 했거든요. 앞으로 이쪽 희망하는 친구들은 좀 더 편하게 정보를 얻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 "관심사는 영상 편집이고 노력하는 건 시간날 때마다 짬짬이 영상 편집을 해 보는 것입니다"
- "관심사는 언어랑 미술에 관심이 많고 장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학원 외에도 집에서 따로 그림이나 연습하는 것이고. 디자인이랑 캐릭터 둘 다 하고 있어요."
- "관심사는 대학을 계속 다녀야 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요, 노력하는 부분은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노력 중인데 ITQ와 GTQ. 포토샵에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과 엑셀 자격증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알바하면서 돈도 모으고 있습니다"
- "관심사는 진로를 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대학을 진학한 거라 교내 활동과 교외 활동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진로를 확장하는 중입니다"
- "저는 현재 중학생이고 관심사는 고등학교 진학입니다. 제가 장래 희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의료쪽이 꿈이라서 그것에 맞게 배우고 싶습니다. 학교나 센터같은 곳은 바리스타라든지 쿠킹이런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좌담회 요약]

- 학생들의 관심 주제가 매우 구체적이었고 방송, 마케팅, 코딩/빅데이터, 포토샵/일러스트, 영상편집, 애니메이션, 스포츠/운동, 의료, 교육자, 심리학/상담, 회계 등을 언급함
- 나의 성공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직업 준비에 관한 조언과 코칭을 받고 싶어하는 언급이 많음
- 학생들의 관심사가 전문적이면서 경험과 숙련의 과정이 필요한 주제다 보니 관악구에서는 진로와 직업 등에 초점을 맞춰서 전문가 강연, 토크쇼, 코칭 등의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언	▸ 전북 전주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학업을 포기한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진로와 관련해 자신이 무엇을 잘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33.2%에 달해 10명 중 3명은 자신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고, 또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64%에 달했는데, 관악구 청소년의 경우 자아정체성 분야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았고 청소년 스스로의 관심 주제가 영상, 코딩, 디자인 등 매우 구체적인 특징을 보임 ▸ 청소년 좌담회에 나타난 관악구 청소년들이 가장 바라는 지원은 진로 상담 및 멘토링과 코칭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성장마인드', '학습법' 등의 '개인적 자아정체성' 관련 분야를 적성과 진로로 연계한 '청소년코칭' 분야를 지원한다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관악구 청소년정책 평가

【좌담회 발언 스크립트】

■ "경제 교과서 시간에 구청에서 간식비랑 교재비, 도서비 이런 걸 지원해 줘서 한달에 일정 시간 이상 모여서 같이 토론하고 활동을 했었어요. 전담 선생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재정도 관리를 해 주셨어요. 저희는 여섯 번 정도 한다면 1주일에 한번씩 만나고. 일단 학교에 다니면서 책 읽을 시간이 많이 없었는데 책도 읽고 의견도 나누는 과정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 "저는 중학생 때 센터에서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같이 제빵도 하고 화장품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체험 분야가 제빵이랑 화장품 만들기밖에 되지 않아서 약간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말고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작년 겨울 방학 때 서울대학교랑 관악구청에서 같이 하는 프로그래밍 교육이 있었어요. 그 교육을 한달 가까이 받았어요. 짧지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 "저는 현재 청소년 자치회 의장으로 활동 중인데요 학교 추천도 있었고 학교 게시판 같은 데에 홍보 포스터가 올라왔길래 해보고 싶어서 그때까지는 저의 진로를 아직 못 찾았을 때라 일단 뭐라도 해봐야겠다 해서 지원을 했는데 뽑혔어요. 인원은 20명 정도, 자치활동이 도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도 많이 뵙고 하다 보니까 사회성도 기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 "저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같은 건 참여를 안 했는데 그것 말고 제가 나누미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다른 지인분들 추천으로 몇 번 제과 제빵, 미용실 이런 데에서 체험을 몇 번 했었어요. 제가 정말 이게 좋아서 하고 싶다는 걸 못찾아서 제과 제빵이나 이런 바리스타 이런 건 좀 많이 널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말고 얘기하셨듯이 의료 같은 거나 이런 건 많이 없어서 체험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체험을 해보고 싶고 여러 분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 “저희 블로그 까페가 있어요. 까페 활동 보고를 하고 저희가 책 읽는 사진과 대화 나누는 걸 올려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 드리고 있었어요. 기간은 6개월 정도. 매달 한 번씩 모이거든요. 서울대에서 교육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이 알려 주셨어요. 제가 문과인데 다양한 분야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보완점은 홍보가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 “저는 옛날이기는 한데 진로 탐색같은 활동으로 제빵 쪽에서 한 달 정도 배우기도 했고 바리스타 체험도 해 봤고 관악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쪽으로 체험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안내받은 사람도 있고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서 찾은 것도 있고. 학교에서 상담실 같은 선생님이 알려주기도 하고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을 따로 불러서 추천해 주기도 하세요”

■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신생 직업이라든가 새로운 직업들이 더 추가되면 참여하는 학생 수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구청에서 한다고 해서 거리감을 느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학생들한테 전달이 잘 안돼서 거리감이 더 큰 거 같아요. 차라리 학교에서 좀 더 많이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좌담회 요약]

-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학생들은 참여 시기가 고등학교때보다는 초·중등때여서 만족도를 언급하기 어렵지만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함
- 서울대와 연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이 좋았고, 학교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식이 학생들의 참여도와 관심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보임
- 학생들이 관심갖는 활동에 대해 교재비, 도서비, 간식비를 제공하고 활동을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게 하는 형태의 지원을 선호하고 있음
- 제과제빵, 화장품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평이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보여서 프로그램 컨텐츠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한 보완이 필요함
- 학생들의 관심사가 프로그래밍 코딩, IT자격증에 몰려 있어서 문과 학생들을 위한 인문학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있었음

정책 제언

- 관악구에서 지원하는 서울대와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고 학생들이 직접 과제를 선정하고 토론하며 수행한 결과를 SNS에 올리는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분위기여서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
- 관악구 내 의사 참여 기구로서 청소년의회 활동 경험자는 소수였지만 참여한 학생은 사회성을 키우는 데 좋았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기에 청소년의회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임
- 학생들의 주 관심사는 진로이기에 멘토링과 함께 진로 코칭도 프로그램 강화 필요
- 청소년정책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선생님이기에 교사를 대상으로 주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3) 관악구에서 지원하면 참여할 것 같은 프로그램

【좌담회 발언 스크립트】

- “저는 상담사분이랑 얘기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고 진로 정하는 데도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대학생 분들이 진로 코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심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상담사님이랑 하는 게 좋아요. 저희 학교에서 체험을 시켜주는 걸 보면 IT 계열, 이과 계열이 굉장히 많아요. 심리학, 의료, 미술 그런 것도 늘려줬으면 좋겠고 보고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 “저는 원어민 영어 회화가 있었다면 참여해 봤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사실 실제로 사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 “청소년 동아리 지원은 고등학교 때 알았다면 했을 것 같아요. 진로를 생각하면 코딩 프로그램 쪽을 하고 싶어요. 코딩이 엄청 많은 곳에 쓰여서 어려서부터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 “4차 산업 미니 박람회 및 진로 직업 체험지원을 통해서 몰랐던 진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 다니면서 그런 걸 들은 적이 없어요”

- “제가 ‘드림인’ 꿈교실을 작년 1년 동안 참여를 했었는데 거기 독서실 구립 청소년 독서실에 오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대상으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멘토링을 하는 게 되게 좋았거든요. 또 제가 관악구청 앞에서 플래시몹 활동 같은 걸 하면서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 같은 걸 봤었는데 그걸 보고 흥미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참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 “저도 방과후 교육 지원 센터를 더 활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 방과 후 시간에 서울대생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지도해 주는 걸 했는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외국어도 관심있어요”

- “서울대 멘토프로그램을 했는데요 일단 학교에서 홍보를 하고 소수의 인원을 모은 다음 서너 명씩 그룹을 만들고 멘토 선생님을 배정해 주세요. 그리고 영어 수학 주요 과목들만 모아서 같이 멘토링을 하는 식이에요. 기간은 좀 짧지만 도움됐어요”

- “저희 학교에서는 일정 기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진로에 관해서 다른 학교나 특이한 학과 선생님들이 오셔서 이 학과에서는 뭘 배우고 이후에 무슨 진로로 나가는지 강의를 해 주시거든요.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 말고 중학교 때부터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진로에 대한 지원이 조금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 “제가 중학생이었다면 공예나 요리, 생태환경, 기후위기에 참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것도 홍보가 안 되어서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만약 제가 고등학생이었다면 생기부에 적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클 것 같은 데 생기부에 적힌다면 더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 “제가 그쪽 사물놀이 동아리 회장으로 해서 그쪽에 한 2년 정도 나갔었어요. 제가 사물놀이를 좋아하고 또 사물놀이로 강감찬 축제에도 나갔어요. 근데 막상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좌담회 요약]

- 학생들은 직업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았지만 어떤 방법과 노력을 해야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갈망하고 있었음. 관악구가 주관하는 <4차산업 미니박람회>가 청소년과 청년에게 좀 더 알려진다면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외국어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검토 필요함
- 특히 서울대멘토링 프로그램은 체험한 학생들이 소수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남. 기간을 짧게 하더라도 수혜대상자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해 보임
- 진로 지원에 대해서 중학교 시절부터 제공되면 도움될 것이란 의견이었고 특히 <방과후 교육지원센터> 활성화와 <학교 밖 프로그램 지원>이 있다면 참여도가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 있었음

정책 제언

- 입시에 민감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인정을 받는 활동에 학생들의 관심이 높음. 최근 봉사 활동 등은 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는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입시 제도 변화를 반영한 청소년정책 수립이 필요함
- 플래시몹 활동이나 오케스트라 활동도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음. 특히 강감찬 축제나 관악구 청소년축제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밴드, 노래, 댄스, 플래시몹 등의 경연대회를 통해 관악구 청소년축제를 대표축제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함

4) 관악구에 건의하는 청소년정책 홍보 방안

【좌담회 발언 스크립트】

-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쓰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인데 그런 걸 하더라도 영상으로 짧게 하고 디자인을 조금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에 붙이는 홍보 포스터 같은 것도 디자인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보지 않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 “학교에서 대학 진학과 관련해서 어디 과는 몇 등급 정도 나와야 갈 수 있다. 어디 과를 졸업하면 어느 정도 진로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려주는데 예체능 관련해서는 거의 알려주는 게 없거든요. 보통 실기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정보 같은 걸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 “관악구청 프로그램 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문구가 뜨면 딱히 구청에서 하는 건 재미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이 되니까 문구, 카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포스터나 전단지 같은 게 많이 오던데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구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그런 친구들은 적을 것 같기 때문에 학교에서 안내를 하거나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광고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학교가 언덕에 있어서 그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 경우가 많은 데 그런 통학 버스에 광고를 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고등학생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대학생 같은 경우는 지하철 광고판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좌담회 요약]

-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가장 효과적인 홍보방법은 학교 선생님을 통한 구전 홍보와 추천이었음
- 강의 프로그램의 경우, 강사의 선정에 관한 지적이 있었는데 유명세나 명망보다는 실제 현장경험을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강의력’ 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강사 자체가 홍보맨이 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음
- 효과적 홍보방식은 중고등학교를 동선으로 하는 버스 홍보/광고 및 지하철 내 광고를 언급함

정책 제언

- 구청의 홍보채널(카톡채널)을 구독한 학생들도 있었지만 적극적인 정보소통 채널로 인식하지는 않음. 홍보문구나 카피가 직관적이어야 한다는 제안이 많았는데 학생들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카피, 디자인 등 컨텐츠 자체가 홍보의 핵심인 것으로 분석되므로 청소년들을 홍보에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도 필요함
- 20대는 구청에서 게시하는 현수막을 중요한 홍보매 체로 꼽았는데 청소년들은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지하철 역사 광고판 등을 좀 더 주목하는 것으로 조사됨

5) 관악구 꿈나래프로젝트 기대감

【좌담회 발언 스크립트】

■ “제가 보면 구청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기후위기, 생태환경, 문화, 외국어 등등 뭐 이런 쪽인데 솔직히 이건 그냥 구청에서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냥 구청이 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청소년 고등학교 중학생 대학생이 원하는 건 뭔지를 잘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저는 설문조사를 먼저 해서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로 활동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 지원이라면 우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어 사회에 첫발을 딛는 건데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취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용 정책에 관해 알바는 시급이 얼마이고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서 받고 그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자세히 알려주고 4대 보험 같은 것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저희 학교가 사립이라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2주 정도 유럽으로 인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줘서 가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저희가 미션 스쿨 재단이 있어서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갔어요. 좋은 경험 같아요. 외국을 갔다 온 것과 아닌 건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해당 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구에서도 이런 지원이 있다면 스페인에 가보고 싶어요”

- “저희 학교가 과학 중심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지 문과 지원은 1도 없고 과학쪽만 지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학여행에 구가 지원을 한다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을 것 같아요. 지리탐색을 약간 응용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생기부에도 적히니까 관심있을 것 같아요”

- “저는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선생님이 오셔서 30명 정도 모아놓고 코딩을 가르쳤거든요. 진로에 들어가니까 생기부 채우는 데도 좋았고 이과 학생들 진로 관련해서도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IT, 코딩 쪽으로는 수요가 많으니까 관심있는 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좌담회 요약]

- 청소년들은 관악구라는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컨텐츠는 다소 재미는 없지만 신뢰할만하다(컨텐츠 퀄리티는 있다)는 인식을 보여줌 특히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자기계발 등 성공과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된다면 참여 의향이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함
-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있기 때문에 수학여행 등 야외 활동에 대한 지원이 있다면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함

정책 제언

- 꿈나래프로젝트 관련 정책 수혜층인 청소년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원계획이 수립되길 희망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고등학생의 경우 생기부와 연계성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어 꿈나래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시스템 구축 필요
- 코로나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 수학여행, 지리탐색 등 야외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주휴수당 등 노동과 근로제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는 목소리 반영 검토

III. 청소년지원기관 실무자 좌담회 결과

1) 관악구의 청소년 정책 지원 부서 통합 필요

【좌담회 발언 스크립트】

■ "청소년정책 지원과 관련해 관악구는 2개의 과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과와 노인청소년과로 분리되어 있는데 실제 관악 청소년 센터를 운영하고 관장하는 건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고 혁신교육 예산 집행을 하는 건 교육 지원과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관악구에서는 교육지원과가 청소년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또 노인청소년과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어요. 주무부서를 통폐합을 해서 하나로 가는 것도 검토해 볼만해요, 마포구의 사례처럼 교육지원과로 통합해서 하면 시너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노인 청소년과가 같이 있는 구는 관악구뿐일 거에요. 아무래도 노인 쪽으로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에 대한 정책은 밀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과에서 정책 순위가 밀려 버리니까. 지금까지도 관악구가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구청장님은 청년 쪽으로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소년 기관으로서는 아쉬움이 있지요"

정책 제언

- 관악구는 청년 정책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선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있어서 효율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함
- 관악구 현황을 고려한 강력한 지원부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외부 정책사례로 언급한 마포구의 경우,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과와 함께 청소년과 학부모를 함께 지원하는 방식으로 코딩 강좌, 뉴노멀 강좌, 영어캠프, 배움터강좌 등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연구할 필요가 있음

2) 관악구 청소년정책 지원 기관들 간의 접근 편의성

【좌담회 발언 스크립트】

■ "현재는 삼성동에 청소년지원기관들이 몰려 있어요. 상담복지 센터는 대상이 명확하게 있고 학교밖 센터도 대상이 명확하게 있지만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관, 문화의집, 도서관 이런 건 하나밖에 없어요. 문화의 집이 삼성동에 생기면 관악구 전체에서 청소년 시설들이 한 지역에 편중될 수 있지요. 더구나 민간과 공공 두 개가 몰려 있게 되어 아이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져요"

■ "청소년들은 대중교통보다는 도보를 이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시설이 있어야 되고 원래 헌법상으로도 청소년 문화의 집은 마을 단위로 설립이 되어야 하는 취지가 있지요. 접근성이 떨어지면 의미가 없지요"

■ “시설이 편중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는 아이도 적겠지만 이용자들도 센터들이 모여 있으니까 ‘프로그램 쇼핑’ 을 다니지요”

■ “청소년 지원기관의 위치는 건물의 한층이나 두개 층을 써도 되니까 지역적 분포가 고르게 될 수 있도록 접근법을 달리 했으면 합니다”

■ “싱글벙글센터가 청소년센터는 아닙니다. 정체성을 알 수 없는 평생교육센터이면서 청소년 시설이라고 되어 있지요. 또 많은 시설들 중에 청소년 독서실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미 두 개가 없어졌고. 그 독서실을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하면 어떨까, 싱글벙글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독서실로 알고 있는데 그곳은 청소년 시설로 가는 게 낫지요. 그리고 청소년 독서실이 신림과 난곡에 있고 그곳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꾼다면 지역별 분포가 고르게 되겠지요”

■ “청소년 독서실이 지금은 문화의 집처럼 운영한다고 들었어요. 거기를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어떨까요. 만일 싱글벙글센터가 청소년센터였다면 거점을 잘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청년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봉천역 근처에 있는데. 청소년 쪽에도 조금 우선권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적절한 입지에 위치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정책 제언

- 봉천역 인근에 있는 청년청에 청소년 독서실이나 교육센터 공간이 입주하면 좋겠다는 의견과 청소년지원센터 선정과 관련해 지역적 분포가 고르게 되면 좋겠다는 지적
- 싱글벙글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청소년문화의집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한다면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청소년지원기관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관악구 내 동별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3) 방과 후 지원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시 형평성

【좌담회 발언 스크립트】

■ “청소년 정책 지원방법을 방과 후로 하면 구청에서 직접 운영을 할 건지 학교로 예산을 내려서 진행을 할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곳들에 예산을 내려서 진행을 할 건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관악구에는 공부방이 엄청 많은 편이고 잘 운영되는데 이 공부방을 관악구 청소년정책 지원의 거점화 하는 방법도 연구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정책은 실핏줄이 살아야 해요 공부방에서 아이들 관리, 책임 등이 계속 활성화되어야 해요. 관에서 하거나 학교로 돈을 주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의 지원방식 일텐데, 학교 밖 아이들의 경우 예산 지원과 관련해 학교로 돈을 주려면 아이들 수에 따른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요”

■ “학교밖 청소년 지원 관련 예산이 깎인다는 말이 있는 데 방과 후로 집중이 되다 보면 아무래도 학교 밖 청소년들, 사실은 좀 소홀해질 수 있겠지요. 학교가 싫어서 나온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인데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이 강화된다면 소외될 수 있어요”

- “학교 밖 아이들은 어떤 의미로는 자립이 중요한데 이 친구들이 세상에 나와서 학교에 안 다니면서 자기가 홀로서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자립이 꼭 문화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생활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한거죠”
-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방과 후라는 말은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화를 지원하든 진로를 지원하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학교가 끝나는 시간대에 프로그램을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접근하기 좋을 것 같아요”
- “진로 콘서트라면 예를 들어서 소방서에 소방관을 모신다든지 경찰을 모신다든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직업 전문가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는 것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걸 구에서 해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 “청소년 정책 홍보와 관련해 단계적으로 아이들을 참여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로구에‘다가치학교’라는 게 있어요. 거기는 학교가 끝날 시간에 학교가 다시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닌 구청 주관으로 마을 단위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정책 사례에요”
- “학교에서 할수 없는 여백 공간들이 많잖아요. ‘다가치학교’ 프로그램은 서울시 1호가 구로구의 오류중학교에서 시작을 했고 도봉구에도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같은 전문가들은 지켜보다가 학생들이 막힌 부분만을 지원하는 거에요 너희들 책 만들고 싶은데 여기에서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이 정도만 하는거죠”
-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것이 강사들에 대한 지원이에요, 관악구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들을 네트워크화 하여 강의 수준을 관리한다면 만족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또 청소년정책 실무자들간의 정기적 모임도 관악구에서 주도할 수 있다면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책 제언

- 청소년정책 추진의 핵심은 동단위 마을단위에서 진행되는 공부방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현장에 대한 예산 지원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해 정책 대상층의 의견수렴 및 평가 시스템 구축을 통해 프로그램 기획과 섭외부터 변화를 주는 것이 필요함
- 참고할 정책 사례로 구로구의 ‘다가치학교’는 학교 내 빈 교실을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변모시켜서 학생들이 스스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지역주민, 교사, 외부전문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임
- ‘다가치학교’의 예산은 서울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분담하는 지역거버넌스 협업 방식으로 관악구에서도 가능 여부 검토
- 청소년 프로그램 강사를 DB화하여 진로 및 직업 프로그램에 적임자를 섭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수혜 대상층인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개선되므로 검토 필요
- 청소년정책 실무자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별첨 : 조사 설문지

관악구 정기 여론조사 설문지

관악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관악구의 의뢰를 받아 관악구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 목표는 구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조사진행 : ㈜휴먼앤데이터 (02-761-5111)

Part 1. 도입부 질문

SQ1. 지역	선생님께서는 현재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 그럼 관악구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1선거구 : ① 보라매동 ② 은천동 ③ 중앙동 ④ 청룡동 ⑤ 신림동 2선거구 : ⑥ 성현동 ⑦ 청림동 ⑧ 행운동 ⑨ 낙성대동 ⑩ 인헌동 ⑪ 남현동 3선거구 : ⑫ 신사동 ⑬ 조원동 ⑭ 미성동 ⑮ 난곡동 ⑯ 난향동 4선거구 : ⑰ 서원동 ⑱ 신원동 ⑲ 서림동 ⑳ 삼성동 ㉑ 대학동
SQ2.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SQ3. 연령	실례지만 선생님께서는 올해 만 나이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 )세 ☞ 만 18세 이하 조사 종료**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세 이상

Part 2. 관악구 주요 정책

문 1) (관악S밸리 지역경제 도움 여부) 관악구는 입주기업에게 세금혜택, 판로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벤처지구 지정은 **관악구 지역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대체로 도움이 된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⑥ 잘모르겠다

문 2) (중소벤처진흥원 설립 필요성) 관악구는 **중소 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⑥ 잘모르겠다

문 3) (수해 재난대응 만족도) 관악구는 지난 여름 큰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시설을 긴급히 복구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관악구의 **수해복구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했다 ② 대체로 잘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못했다 ⑤ 매우 못했다 ⑥ 잘모르겠다

문 4) (강감찬브랜드 파워 인지도) 관악구는 고려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 장군이 태어나 자란 도시입니다. 관악구가 **매년 10월 낙성대 공원에서 강감찬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①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축제 내용도 알고 있다
②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축제 내용은 모른다
③ 축제 내용은 알지만, 매년 10월 개최하는 것은 모른다 ④ 전혀 모른다

문 5) (여성친화도시 양성평등 구현 필요성) 관악구는 온 가족이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대체로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⑥ 잘 모르겠다

문 6) (중점 추진해야 하는 청소년 정책) 관악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제외 보기 로테이션)
① 진로 · 진학 프로그램 ② 심리 · 정서 지원 ③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
④ 미래 기술 교육 ⑤ 문화 · 예술 · 창작 활동 지원 ⑥ 기타(적어주세요)

문 7) (1인가구를 위한 중점 추진 정책) 관악구는 전국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관악구에서 **1인 가구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제외 보기 로테이션)
① 일자리 제공 ② 주거복지 지원 ③ 사회관계망 형성
④ 생계비 지원 ⑤ 건강 · 돌봄 서비스 ⑥ 기타 (적어주세요)

문 8) (청년문화국 신설 적절성) 청년 인구비중 전국 1위인 관악구는 청년정책을 중점 추진하고자 **'청년 문화국'을 전국 최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적절하다 ② 대체로 적절하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적절하지 않다 ⑤ 매우 부적절하다 ⑥ 잘 모르겠다

문 9) (청년특별시 관악위한 중점 추진 정책) 관악구에서 **청년들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제외 보기 로테이션)
① 문화공간 확대 ② 월세 · 임대주택 등 주거안정 지원
③ 동아리 등 커뮤니티 활동지원 ④ 일자리 기회 확대 ⑤ 근로장려금 지원
⑥ 기타 (적어주세요)

문 10) (반려동물 복지위한 중점 추진 정책) 관악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습니다. 관악구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제외 보기 로테이션)
① 유기동물 보호사업 ② 길고양이 중성화 및 학대방지 사업
③ 반려동물 문화조성 사업 ④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⑤ 기타 (적어주세요)

문 11) (거주자 우선주차구역 배정기간) 관악구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을 6개월마다 새로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정기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 6개월이 바람직 ② 3개월로 축소 운영이 바람직 ③ 1년으로 연장 운영이 바람직
④ 기타 (적어주세요)

문 12) (쓰레기 배출 시간 인지) 관악구 **주거지역의 생활 쓰레기 배출 시간**은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① 출근 시간대 (오전 6시 ~ 오전 10시) ② 점심 시간대 (오전 11시 ~ 오후 2시)
③ 저녁 시간대 (오후 6시 ~ 자정) ④ 언제든지 배출 가능 ⑤ 기타 (적어주세요)

문 13) (쓰레기 배출 장소 인지) 관악구 **주거지역의 생활 쓰레기 배출 장소**는 어디로 알고 계십니까? (기타 제외 보기 로테이션)
① 내 집, 내 점포 앞 ② 가까운 공터 ③ 주변 전봇대 ④ 대로변
⑤ 기타 (적어주세요)

문 14) (탄소중립 도시를 위한 실천프로그램 참여도) 관악구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실천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반드시 참여하겠다 ② 기회가 되면 참여하겠다 ③ 대체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 ④ 전혀 참여할 생각이 없다 ⑤ 잘 모르겠다

문 15) (민선8기 역점 분야)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타 제외 보기 로테이션)
① 경제 · 일자리 ② 복지 · 보건 ③ 문화 · 교육 ④ 청년 · 1인가구 ⑤ 안전 · 교통
⑥ 환경 · 공원녹지 ⑦ 기타 (적어주세요)

문 16) (민선8기 구정 만족도) **관악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사업 전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못하고 있다 ⑤ 매우 못하고 있다 ⑥ 잘 모르겠다

Part 3. 관악구 일반 사항

문 17) (관악구 거주이유) **관악구에 거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타 제외 보기 로테이션)
① 교육, 보육 등 아이를 키우기 좋아서 ② 학교, 직장 또는 사업 소재지라서 ③ 공원, 산 등 자연환경이 좋아서 ④ 집세와 물가 등이 저렴해서 ⑤ 기타 (적어주세요)

문 18) (관악구 소식 인지 경로) **관악구의 구정 주요 소식 경로는 어떻게 되십니까?** (기타 제외 보기 로테이션)
① 현수막 ② 구정소식지(관악소리) ③ 인터넷신문(해피매거진) ④ 관악구 지역신문 ⑤ HCN 케이블 방송
⑥ 관악구청 홈페이지 ⑦ 관악구청 홍보매체(전광판 등) ⑧ 관악구 공식 SNS(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등)
⑨기타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한 질문입니다

DQ1 직업	DQ 1) 실례지만, 선생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기타 제외 보기 로테이션) ① 현장직/기능직 ② 자영업/판매서비스직 ③ 사무직/관리직/전문직 ④ 가정주부 ⑤ 학생 ⑥ 무직/취업준비중 ⑦ 기타(적어주세요 :)
DQ2 거주 기간	DQ 2) 선생님께서 관악구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10년 미만 ③ 10년 이상~20년 미만 ④ 20년 이상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TEL : 02-879-5000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FAX : 02-879-7802
COPYRIGHTS□ 2022 GWANAK GU, ALL RIGHT RESERVED.